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September 2019, pp.4~3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나주목(羅州牧)의 자기소(磁器所)·도기소(陶器所) 위치 연구

성윤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 kk6505@empas.com

국 문 초 록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200여년 동안 생산되었던 분청사기는 백자와 함께 왕실뿐 아니라 국가 행사에 사용되었던 조선 초기 국용(國用) 자기였다. 분청사기는 청자·백자와 달리 『세종실록』「지리지」에 그 생산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와 도기소 기록이 남아 있어 매우 주목된다. 하지만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 소재의 자기소·도기소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나주목에 소속되었던 나주목, 해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현, 무안현, 장성현, 고창현, 흥덕현의 자기소·도기소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의 조사를 근거로 자기소를 추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유물, 즉 분청사기 편년만을 이용하여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각 지역별 자기소·도기소로 기록된 지명과 조선 후기 지방 행정 명칭을 기록한 『호구총수』의 지명을 대조하여 그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자기 관련 지명, 지표 및 발굴조사에서 수습·확인된 유물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기소·도기소 위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8개 시·군 9개 지역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였다.

둘째, 자기소뿐 아니라 도기소에서의 자기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나주목 도기소, 영암군 도기소, 무안현 도기소로 각각 비정되는 영암 청용리 동산 분청사기 요지, 영암 상월리 유천 분청사기 요지, 무안 청수리 청수동 분청사기 요지 등에서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발굴 결과 공납 자기로 추정할 수 있는 '공(公)'명, '상(上)'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고, 이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청도리가 전주부 도기소 우림곡(雨林谷)이 있었던 우림곡면(雨林谷面) 지역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이 아니지만 매우 주목할 만한 유적이다. 도기소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존 조사에서는 지표 혹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만 중요시하였으나,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기소·도기소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명에 대한 변화나 자기 관련 지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자기소, 도기소, 분청사기 요지, 나주목, 세종실록 지리지

투고일자 2019. 03. 29 ● **심사일자** 2019. 04. 22 ● **게재확정일자** 2019. 05. 07

Ⅰ. 머리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자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분청사기와 백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고려 말~조선 초 200여년 동안 생산되었던 분청사기[1]는 백자보다 먼저 소멸되었지만, 백자만으로 조선시대 도자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고려 말 상감청자를 계승한 분청사기는 분청사기 전용 가마도 있었지만 백자와 동일한 요장에서 생산되기도 하였다. 발굴 조사된 광주 충효동이나 경북 고령 사부리, 기산리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분청사기 생산량은 다른 자기를 압도하였을 뿐 아니라[2] 백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왕실과 국가 행사에 사용되었던 국용(國用) 자기였다. 특히 15세기 초반 백자 가마터가 확인되지 않았고, 분청사기의 최고 전성기가 백자의 전면적 등장을 알리는 경기도 광주 분원 개시 시기보다 약간 앞서고 있기도 하다.[3]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조선 초기 대표 자기를 분청사기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자기 연구는 주로 요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분청사기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많은 가마터가 발굴조사되었고 그 대표적인 유적은 충남 공주 학봉리와 광주(光州) 충효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91년 두 차례 이루어진 광주 충효동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분청사기 요지 발굴 결과를 편년·해석하는데 준용(準用)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 각 지역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발간으로 전국의 가마터 관련 기초자료도 확보되었다.

이에 비해 자기 관련 문헌은 극히 드문데, 분청사기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 관련 기록은 매우 고무적이다. 『세종실록』에는 다른 왕들의 그것과 달리 「지리지」가 부록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지역에 대한 연혁을 시작으로 토성(土姓), 사방 경계, 토산물 등과 아울러 당시 치소(治所)를 기준으로 자기소·도기소의 방위, 품등(品等), 수(數)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는 조선 초기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 정비 과정으로[4]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수취제도와 관련이 깊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5]

다시 말해서 조선 초기 분청사기는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던 요장(窯場)에서 생산되어, 공납(貢納) 제도를 통해 현물세로 중앙 정부에 납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 현재 발굴보고서나 각종 연구서에서 분청사기와 분청자를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어 통일에 대한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고,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砂器)'→'분청사기(粉靑沙器)'로의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분청사기(粉靑沙器)'를 사용하고자 한다.

2 金喜靜, 2014, 「15世紀 慶南地域 白磁의 變遷過程과 特徵」, 忠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54~56.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상품 자기소 4개 중의 하나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의 번천리 17호 가마에서도 분청사기 중심의 제작 상황을 보이고 있다(田勝昌, 2007,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 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62).

3 강경숙, 2011, 『한국 도자사의 연구』, SIGONGART, p.401, 전승창도 1392~1432년에 해당되는 발굴 가마가 없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전승창, 2007, 앞의 논문, p.282 표 56 民窯 및 官窯 시기별 가마와 운영 참조) 한편 분청사기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강경숙 선생의 편년안을 따랐는데, 그 안에 따르면 1400~1432년의 성립기를 거친 후 1432~1469년를 분청사기의 발전기로 보았다.(강경숙·김세진, 2015, 『유적 출토 도자기 바로 보기』, 진인진, pp.34~46, 강경숙 선생의 분청사기 편년안의 경우 기존 편년안보다 더 세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편년안은 강경숙, 2011, 앞의 책, pp.137~143 참조) 한편 백자의 경우에는 분원 성립 이전의 백자가 유물로 남아 있는 예도 있고, 세종대 御器로 백자만을 專用하였지만, 현재 확인되는 가마터에서의 생산량은 분청사기보다 적었다. 하지만 필자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위상 변화가 1450년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점(박경자, 2010,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 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 변화」『美術史學』 24, pp.296~303)과 본격적인 백자 생산을 알리는 분원의 성립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원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전승창, 2007, 앞의 논문, pp.69~78 참조)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를 1466년 6월 전후, 1467. 4~1468년 말(김영원 선생은 최근의 논고에서 1467년 4~12월로 수정된 견해를 제시하였다.(김영원, 2014,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 시기」『美術資料』 86, p.69)), 1469년까지 설치 완료, 15세기 후반 등 네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절정기가 본격적인 백자 생산보다 대체로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徐仁源, 2002, 『朝鮮 初期 地理志 硏究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pp.25~44.

5 박경자, 2009, 「朝鮮 15世紀 磁器 貢納에 관한 硏究」,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세종실록』「지리지」의 자기소·도기소 기록은 결국 조선 전기 분청사기 생산과 관련된 내용인 셈이다. 이는 청자나 백자와 비교해 주목되는 자료로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실록』 편찬 이전인 1417년(태종 17) 4월과 1421년(세종 3) 4월의 조치, 즉 기물에 대한 관사명(官司名)과 장인명(匠人名)의 표기는 분청사기를 편년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충효동 요지 발굴 결과를 통해 편년에 대한 시기 폭을 보다 한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분청사기 연구는 발굴된 요지의 편년을 설정하고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적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기존 조사와 연구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각 지역별 자기소·도기소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관련된 문제이다.[6] 특히 전라도의 경우 경상도에 비해 연구 성과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가 현재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기소·도기소로 기록된 지명을 여러 방법으로 고찰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명이 일제강점기 인근 지역 명칭에서 한 글자씩 떼어내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인 조선시대 지명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戶口總數)』를 주목하였다.[7]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도기소 지명과 『호구총수』에 기록된 지명을 대조하고, 기존 조사 내용과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8] 수습한 유물을 비교하면서 시기적인 공통점을 찾아볼 것이다. 두 문헌의 지명이 상이(相異)하면, 『호구총수』에서 자기소·도기소 지명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여 비교해 보았고,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자기 관련 지명도 확인해 보겠다.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과 자기소·도기소로 기록된 지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지나친 억측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동안 미진하였던 호남지역 자기소·도기소 연구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자기소·도기소의 성격과 나주목

1. 자기소·도기소의 성격

조선 초기 자기소·도기소는 현물세인 자기를 생산하는 작업장 혹은 제작처로 여겨졌다.[9] 다시 말해서 각 지방의 사기장(沙器匠)들에 의해 생산된 자기는 공납품의 하나로써 중앙 관서에 납부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기장들이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고, 그 작업장이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와 도기

6 경상도 지역의 경우 37개 자기소 중 위치가 밝혀진 것은 20개소이다(金喜靜, 2014, 「15世紀 慶南地域 白磁의 變遷過程과 特徵」, 忠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3 표 7 경상도 지역의 확인·추정되는 자기소 참조).

7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호구총수』는 조선 후기 각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지방사회의 인구통계, 지역 행정조직, 그 규모를 추적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解題」 『戶口總數』 참조)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자기소·도기소 지명과 1789년경의 문헌에 나오는 지명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선시대 지명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고지도 외에는 거의 없다. 고지도 또한 조선 전기의 것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역명이 자세하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록 조선 후기의 것이지만 당대의 지명을 지역별로 정확히 알 수 있는 『戶口總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양자를 서로 비교·대조해서 합리적이면서도 가능성 높은 지역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호남지역 도자문화연구 -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자기소와 도기소 조사"라는 연구 내용을 2013년 예비연구과제로 진행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7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나주목에 해당되는 현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영광군, 고창군, 장성군, 해남군 등 8개 시·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이 2017년 12월에 발간된 『湖南 磁器所 陶器所 -羅州牧-』이다. 지표조사는 각 시·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보고된 분청사기와 백자 요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9 박경자, 2009, 앞의 논문, p.32.

소, 즉 공납요인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자기소(磁器所) 139개, 도기소(陶器所) 185개가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자기소와 도기소를 구별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이들 각 소(所)에서 제작된 생산품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각 지역 토산조(土産條)에도 자기(磁器), 사기(沙器), 도기(陶器)로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볼 때, 도기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현재까지의 조사·연구가 자기 가마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도기 연구는 소홀하였던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10]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에서는 자기를 제작하였다. 자기소에서 생산된 것은 분청사기와 소량의 백자이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자기소로 기록된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 중 현재까지도 세종 당시의 지명이 남아 있거나, 고증된 지역 모두 분청사기 가마터이기 때문에 세종(世宗) 당시 자기의 개념은 분청사기와 백자라고 하였다.[11]

전라도에서도 충청도 지역처럼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예가 확인된다. 전라도 지역 중 전주부와 나주목의 중품 자기소로 기록된 장파곤동(長波昆洞)과 대각동(大角洞)이 그것이다. 장파곤동의 경우에는 현재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장파마을로 추정되며 이곳에서도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다.[12] 나주목 자기소 대각동은 현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대각촌마을에 해당된다.[13] 자기소로 기록된 지역명이 현재까지도 확인될 뿐 아니라 실제 분청사기 요지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에서 자기가 생산되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문헌 기록을 보더라도 자기소에서는 자기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7년(1425) 2월, 광주목사(廣州牧使)에게 명(明)에 바칠 대중소(大中小)의 백자(白磁) 장본(獐本) 10개를 정세하게 구워 올리라는 기록이 보인다.[14] 이 백자는 명나라 조공품(朝貢品)이기에 그 품질이 당연히 좋았을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광주목의 상품(上品) 자기소로 기록된 벌을천(伐乙川)인 현 번천리 요지가 위 기록에 해당되는 요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15] 따라서 광주목 자기소 벌을천에서 자기 생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필재집(佔畢齋集)』에는 김종직의

10 鄭春澤, 2017, 「朝鮮 前期 墳墓 出土 陶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硏究」,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정춘택의 논문은 분묘 출토 도기에 대한 것이지만, 磁器와 陶器의 개념을 기왕의 연구 성과와 문헌 기록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기에 대한 개념 정리는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 토산조에 磁器로 기록된 곳은 전주부, 나주목, 고창현 등이, 沙器로 기록된 곳은 금구현, 함평현 등이고, 陶器로 기록된 곳은 광주목과 청주목 등이 있다.

11 姜敬淑, 1994,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硏究」 『美術史學硏究』 202, pp.26~29. 상품 자기소로 기록된 광주의 伐乙川과 고령의 曳峴里는 경기도 광주 번천리 요지와 고령 기산동 요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분청사기와 소량의 백자가 확인되었다(姜敬淑, 2003,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硏究』 237, pp.79~80).

12 장파마을은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로 원래는 전주 龜耳洞面이었던 九耳面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장파, 안덕을 병합하여 안덕리라고 하여 구이면에 편입되었다.(柳在泳,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民音社, p.51;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편-』, pp.238~239) 『호구총수』 전주 편에도 仇耳洞面에 長坡里가 확인되고, 全州府의 1872년 지방지도에도 남쪽 龜耳洞面에 長坡里가 표기되어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db.snu.ac.kr 홈페이지 참조)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단계에서는 長波昆洞이라 하였으나, 그 이후 長坡里로 바뀐 듯하다. 특히 이 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수습된 유물의 경우 14~15세기 초로 추정되어(國立全州博物館, 1997,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朝鮮時代 粉靑·白磁 窯址-』, p.371) 『世宗實錄』 「地理志」 편찬 단계의 시기와 부합된다. 따라서 전주부 중품 자기소인 장파곤동은 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장파 분청사기 요지가 거의 확실시된다.

13 나주목 자기소로 기록된 대각동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14 『世宗實錄』 卷27 7年 2月 乙卯條.
(중략)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磻造以進.

15 姜敬淑, 2003, 앞의 논문, pp.78~86.

아버지인 김숙자가 고령의 장인들에게 '구사지법(九篩之法)'을 가르쳐 그릇이 정치(精緻)·선결(鮮潔)하여 광주·남원보다 우월했다는 기록이 있다.[16]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고령현조에는 상품 자기소가 현(縣) 동쪽 예현리(曳峴里)에 있다고 하였다.[17] 고령에서 해마다 백사기(白砂器)[백자]를 진공했다는 곳은 광주목의 예처럼 당연히 고령현의 상품 자기소인 예현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고령현 자기소 예현리에서도 자기(백자)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기소는 자기소의 예와는 달리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기(陶器)가 『세종실록』「지리지」의 도기소 제작 생산품과 동일한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특히 기왕의 연구 중에는 도기소에서도 분청사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까지 제기된 상황이다.[18] 즉 도기소로 기록된 곳에서 분청사기를 번조한 사례가 있어 도기소에서 도기만을 생산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9]

그렇지만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도기(陶器)는 와기(瓦器), 항(缸), 옹(甕)이라고 하여[20]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와기, 항아리[缸], 독[瓮]을 도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도기소 중 '옹(甕)'과 '와(瓦)'가 들어간 지명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21] 이들 기록에서 생각할 점은 항아리[缸]나 독[瓮]은 대체로 저장용의 큰 기물이라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도기소로 추정되는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저장용의 큰 기물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필자는 흥덕현 도기소로 기록된 윤현동(輪峴洞)을 고창군 아산면 용산리 용산교차로~연기마을 주변 삼인교차로 일대로 추정하였다.[22] 그런데 그 주변에는 발굴 조사된 고창 용산리 요지가 위치하고 있다. 요지 발굴 결과 높이 23~43.6㎝의 대호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23] 영암군 도기소 곤미율점(昆湄栗岾)으로 비정되는 영암 상월리 분청사기 요지에서도 높이 30㎝의 조화기법 분청사기 항아리편이 출토되었다.[24] 또한 합천군 도기소 제작으로 추정된 Honolulu Academy of

16 『佔畢齋集』 彝尊錄 先公事業 第四.
高靈歲貢白砂器 工人用功 甚鹵莽 故器多若窳 官被詰責 先公至 召語工人曰 昔舜陶河濱 胡公利器用而封之陳 是豈可少哉 若等祖孫 世守其業 何鹵莽如是 若等妻子 皆知造餠餌 篩之數重 則米屑精潔 撫按良久 則脈理膩滑 其用工與此何殊 遂教其下九篩之法 精緻鮮潔 居廣州南原之右 先是 每進獻 二邑之工受賞 縣工多得罪 今縣工得賞 而二邑之工 反受譴 至今賴之.

17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高靈縣條.
磁器所一 在峴東曳峴里上品.

18 金英媛, 1995, 「世宗 연간의 陶磁에 관한 考察」 『美術資料』 55, pp.46~50; 金英媛, 2001, 「朝鮮時代 窯業體制의 變遷 -陶器所·磁器所에서 分院官窯로-」 『美術資料』 66, p.21~27; 방병선, 2005,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 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pp.82~84. 특히 방병선은 "분청사기 출토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자기와 도기 모두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9 김영원,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pp.85~86. 도기소의 경우 기록에 등장하는 가마터를 조사해보면 분청사기를 제작했던 가마터가 대부분 발견되고 있어 성격에 대한 문제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김윤정·박경자·방병선·서현주·엄승희·이성주·이종민·전승창·최종택, 2015, 『한국도자사전』, 경인문화사, pp.138~139 도기소 편, pp.145~146 도자소 편 참조).

20 成俔, 『慵齋叢話』 卷10(『大東野乘』에 수록). '사람이 사용하는 것 중에 질그릇이 가장 긴요하다. 지금의 마포와 노량진 등은 모두 진흙 굽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는 모두 와기(瓦器)·항아리[缸]·독[瓮]의 종류이다. 자기(磁器)의 경우 백토(白土)를 써서 정밀하게 구워 만들어야 사용하기가 좋다. 외방 각 도(道)에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다만 고령(高靈)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정교하다. 그러나 그것도 광주(廣州)에서 만든 것만큼 정묘하진 못하다(人之所用 陶器最緊 今麻浦露梁等處 皆以陶埴爲業 此皆瓦器缸瓮之類 至如磁器 須用白土 精緻燔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 多有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不若廣州之尤爲精也).'

21 강경숙, 2003, 앞의 논문, p.80.

22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3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高敞 龍山里 窯址』, pp.94~96, pp.370~372.

24 영암 상월리 분청사기 요지는 영암군 도기소 昆湄栗岾으로 비정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Arts 소장의 '합천장홍고(陜川長興庫)'명 분청인화사이호도[25] 높이 28.5㎝로 역시 대형 기물이다. 앞의 두 점은 조화와 조화박지기법으로, '합천장홍고명 분청사기'는 인화기법으로 제작되었다는 차이를 제외하고 높이 20㎝ 이상의 비교적 대형 기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나주목 도기소로 추정되는 현 영암군 금정면 금마리(金磨里)에서 수습된 유물 중에서도 조화기법의 분청사기호편이 확인되었다.[26]

위 네 사례는 도기소에서 분청사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의 일례(一例)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앞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도기소로 기록된 요지가 더 많이 확인되고 이와 동시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진전된 성격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도기소는 상(上)·중(中)·하(下)의 품등으로 구별하였다. 이 세 가지 품등에 대해서 상품 자기소는 백자 혹은 백자나 공납용 분청사기를, 중품과 하품은 대체로 분청사기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보았다.[27] 그러나 중품과 하품 자기소 발굴 결과 그 품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상·중·하의 품등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28]

이에 대해서는 상·중·하의 품등은 자기와 도기의 품질이 아니라 자기소와 도기소의 품(品)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있다. 즉 각 주현(州縣)의 수령들이 공납 업무의 책임자로서 관할 지역 장인의 수와 숙련도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을 『세종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기와 도기의 품질 또한 장인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29]

이 견해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또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장인의 제작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만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기 생산을 담당했던 장인과 달리 견습생을 두어 궐원(闕員)이 생기면 수를 맞추는 것을 법식으로 삼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30] 장인들의 공물 제작 숙련도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자기는 가마 내부에 넣고 번조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생산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가마 안의 환경에 따라 자기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번조 과정도 결국 장인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김종직의 『점필재집(佔畢齋集)』이다. 이 문헌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1440년대 고령현에서 제작·납공된 백사기(白砂器)가 조잡하여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가 '구사지법(九篩之法)'을 가르쳐 품질이 광주와 남원보다 좋아졌다는 것인데, 자기의 품질이 타 지역(광주와 남원)보

25 金英媛, 1995, 앞의 논문, p.47. 이 사이호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p.135, p.346에도 소개되어 있다.

26 秀林文化財團·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3, 『靈巖의 磁器所 陶器所 學術調査 報告書』 p.85. 나주목의 도기소인 금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7 강경숙, 1994, 앞의 논문, p.54.

28 박경자, 2009, 앞의 논문, p.56.

29 박경자, 2009, 앞의 논문, p.69. 최근에는 자기소의 상품이 공납의 운송방식과 입지조건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박경자, 2017, 「상주 상판리 자기 가마와 『世宗實錄』「지리지」 上品 磁器所」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79) 최근 品等의 의미와 品定의 목적을 첫째, 공물용 자기 생산 및 공납 의무가 부과된 자기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자기소에 적용된 상품은 백자 혹은 품질이 좋은 자기의 생산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와 기능으로 이해해야 하며, 셋째, 상품 철장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철장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자기소 품등 이해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넷째, 품등의 본질적 주체는 생산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생산하고 공납하는 자기소에 있고, 품등을 정한 목적은 공납 상황을 표기하여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기 공물을 현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추론하였다(안세진, 2018,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磁器所) 품등(品等)의 의미와 품정(品定)의 목적」 『陶藝硏究』 27, pp.292~293).

30 박경자, 2009, 앞의 논문, p.69; 『世宗實錄』 28卷 7年 4月 28日 丁卯條.
工曹啓 曹屬諸色匠人 分其所任緊緩 已曾酌量定額 然額內不足者頗多 請以良人公賤及別戶私賤成才者 聽各色匠人自告充定 分番立役其中如金箔匠 鍊金匠螺鈿匠 筆匠印匠紅鞓匠等無私習者 以各司年少奴子於定額內 加數傳習 隨其有闕充額以爲恒式 從之.

다 나아졌다는 것은 고령현 소속 장인들의 숙련도가 높아져 그 결과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상·중·하의 품등은 장인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견해는 매우 주목된다.

이에 반해 『세종실록』에 기재된 다른 수공업품인 종이, 철, 유황, 전세(田稅) 등의 품(品)이 품질을 의미하고, 20개소에 달하는 경상도 자기소에서 수습된 백자, 분청사기를 대상으로 기종, 장식기법, 문양, 태토, 유색, 명문, 요도구 등을 검토한 결과 상·중·하품은 결국 자기의 품질이라는 연구 성과도 있어[31]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나주목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와 그 유형

조선시대 전국 8도 중 전라도는 크게 전주부, 나주목, 남원도호부, 장흥도호부 등 네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나주목(羅州牧)에는 해진군(海珍郡), 영암군(靈巖郡), 영광군(靈光郡), 강진현(康津縣), 무장현(茂長縣), 함평현(咸平縣), 남평현(南平縣), 무안현(務安縣), 고창현(高敞縣), 흥덕현(興德縣), 장성현(長城縣)이 속해 있었다. 이들 지역 중 강진현, 무장현, 남평현 등 3개 지역은 자기소·도기소 기록이 없고, 장성현의 경우 자기소 기록만 있다(표 1).

본 논문에서 살펴볼 지역은 고창을 포함한 현 전라남도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 자기소는 기록이 없는 강진현과 무장현, 남평현을 제외하면 모두 10개가 있었다. 영암군은 다른 군현과 달리 곤미다점리(昆湄多岾里)에 2개가 있었고,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씩이다. 도기소 역시 영암군과 홍덕현에 각각 2개씩이고, 함평현에는 예외적으로 5개가 세 곳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모두 14개이다. 상품 자기소는 경기도에 한 곳, 경상도에 세 곳 등 모두 네 곳뿐이었다.[32]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는 상품은 없고 대부분 중품과 하품인데, 자기소의 경우 중품과 하품이 각각 5개씩인 데 반해, 도기소는 무안현 도기소 1개소만 중품이고 모두 하품이다.

자기소·도기소 기록 중 방향에 대해서는 동서남북 어느 하나의 방향만을 택하여 표기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인 곳도 있다. 범위를 현재의 전라남도 지역으로 넓혀서 보자면,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관할인 옥과현(玉果縣) 자기소는 '서북(西北)'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기소와 도기소 수량에 있어서 곡성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기소 수(數)가 확인되지 않지만, '재현서묘현(在縣西猫峴)'이라고 표기되어 한 곳으로 추정된다. 자기소·도기소 위치에 대한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지역은 장흥도호부이다. 다른 곳의 자기소·도기소 위치 설명을 부(府)·주(州)·군(郡)·현(縣)+방향+마을명으로 기록한데 반해, 이 지역만 마을명 앞에 치소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1).

또한 품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순천도호부와 무진군의 경우 자기소·도기소 모두 품등 표시가 없다. 특히 무진군, 즉 현 광주광역시의 경우 충효동 분청사기 요지가 발굴 조사되어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등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33] 해진군은 자기소와 도기소가 현(縣) 동쪽 파지점(波池岾)으로 동일하다. 이는 다른 군현의 자기소·도기소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기록된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 지역 중 유일한 예에 속한다.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자기소와 도기소로 기록된 지명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지형을 알 수 있는 지명으로, 고개를 의미하는 현(峴)이나 점(岾), 골짜기를 나타내는 곡(谷)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마을을 의미하는 리(里), 동(洞),

31 장동철, 2013,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品等 基準 硏究 -慶尙道를 중심으로-」 『文物硏究』 24, pp.72~79.

32 상품 자기소로 기록된 곳은 京畿道 廣州牧 伐乙川, 慶尙道 高靈縣 曳峴里, 경상도 尙州牧 中牟峴 楸縣里와 己未隈里이다.

33 무진군(광주광역시) 자기소는 발굴조사된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 주변 일대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무진군이 장흥도호부 속현이기 때문에 별고에서 다룰 것이다.

향(鄕), 촌(村)이 있고, 세 번째는 강이나 바닷가를 끼고 있었던 듯 포구를 의미하는 '진(津)', '포(浦)'자가 붙은 지명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의미하는 지명으로 생각되는데, 담양도호부의 자기소 동무지(東無知), 고흥현 도기소 죽전(粥田), 화순현 자기소 대암(大巖), 동복현의 도기소 사평(沙坪)이 그 예가 아닐까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기소·도기소 기록과 조사 현황은 <그림 1>, <표 1>과 같다.[34]



그림 1 나주목에 해당되는 전남북 일대 분청사기·백자 요지 분포현황도(2013년 지표조사).

표 1 나주목·남원도호부·장흥도호부 각 소속 군현별 자기소·도기소 현황

계수관(界首官)	지역	자기소(磁器所)			도기소(陶器所)		
		위치	수(數)	품등(品等)	위치	수(數)	품등(品等)
나주목(羅州牧)	나주목(羅州牧)	주(州) 서쪽 대각동(大角洞)	1	중품	주(州) 남쪽 금마리(金磨里)	1	하품
	해진군(海珍郡)	군(郡) 동쪽 파지점(波池岾)	1	하품	군(郡) 동쪽 파지점(波池岾)	1	하품
	영암군(靈巖郡)	군(郡) 서쪽 곤미다점리(昆湄多岾里)	2	중품	군(郡) 서쪽 곤미율점(昆湄栗岾)	2	하품
	영광군(靈光郡)	군(郡) 서쪽 구수동(九岫洞)	1	하품	군(郡) 남쪽 송악지동(松嶽只洞)	1	하품
	강진현(康津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34 원문의 순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지역 순으로 하였으나, 나주목 중 현 전남과 전북 지역을 구별하기 위해 장성현을 위에, 고창현과 흥덕현을 아래에 배치하였다(『世宗實錄』 151卷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南原都護府, 長興都護府, 全州府 참조).

계수관(界首官)	지역	자기소(磁器所)			도기소(陶器所)		
		위치	수(數)	품등(品等)	위치	수(數)	품등(品等)
나주목(羅州牧)	무장현(茂長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함평현(咸平縣)	현(縣) 북쪽 완창리(完昌里)	1	하품	둘은 완창리(完昌里) 둘은 현(縣) 서쪽 다경리(多慶里) 하나는 현(縣) 동쪽 쌍령동(雙嶺洞)	5	하품
	남평현(南平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무안현(務安縣)	현(縣) 서쪽 주동(周洞)	1	중품	현(縣) 서쪽 청천동(淸川洞)	1	중품
	장성현(長城縣)	현(縣) 서쪽 모율리(毛栗里)	1	하품	도기소 기록 없음		
	고창현(高敞縣)	현(縣) 서쪽 덕암리(德巖里)	1	중품	현(縣) 서쪽 포내호리(布乃乎里)	1	하품
	흥덕현(興德縣)	현(縣) 남쪽 갑향(甲鄕)	1	중품	현(縣) 서쪽 윤현동(輪峴洞)	2	하품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구례현(求禮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곡성현(谷城縣)	현(縣) 남쪽 우곡(牛谷)	1	하품	현(縣) 서쪽 묘현(猫峴)	1(?)[35]	하품
	광양현(光陽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부(府) 동쪽 20리(里) 소아곡리(所兒谷里)	1	하품	부(府) 남쪽 10리(里) 묵방리(墨方里)	1	중품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	부(府) 동쪽 동무지(東無知)	1	중품	부(府) 남쪽 영암동(靈岩洞)	1	중품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부(府) 북쪽	1		부(府) 북쪽 말촌(末村) 부(府) 동쪽 토진(吐津) 부(府) 남쪽 이포(梨浦)	3	
	무진군(茂珍郡)	군(郡) 동쪽 이점(利岾)	1		군(郡) 북쪽	1	
	보성군(寶城郡)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낙안군(樂安郡)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고흥현(高興縣)	현(縣) 서쪽 은촌(狀村)	1	하품	현(縣) 서쪽 죽전(粥田)	1	하품
	능성현(綾城縣)	현(縣) 서쪽 부방리(釜方里)	1	중품	현(縣) 동쪽 금천리(金川里)	1	중품
	창평현(昌平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화순현(和順縣)	자기소 기록 없음			현(縣) 동쪽 대암(大巖)	1	하품
	동복현(同福縣)	현(縣) 남쪽 사평(沙坪)	1	중품	도기소 기록 없음		
	옥과현(玉果縣)	현(縣) 서북쪽 설산리(雪山里)	1	하품	현(縣) 서쪽 망산리(芒山里)	1	하품
	진원현(珍原縣)	자기소·도기소 기록 없음					
합계			19			25	

Ⅲ.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 위치 비정

1. 전라남도 지역

이 장에서는 현(現) 전라남도 지역 중 조선 초기 나주목에 속해 있던 각 군현별 자기소·도기소의 지명을 고찰하면서 구체적인 위치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먼저 나주목이다. 나주목 자기소는 서쪽 대각동(大角洞)에 있고 중품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 전국의 호수(戶數)를 기록한『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나주 곡강면(曲江面)에 대각촌(大角村)이 확인된다.[36] '동(洞)'과 '촌(村)'만 다르고 마을명인 '대각(大角)'은 동일하다. 곡강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두동면(豆洞面)의 '동(洞)'과 곡강면(曲江面)의 '강(江)'을 합쳐 동강면(洞江面)이 되었

35 谷城縣 도기소는 그 數에 대한 내용은 없고, '在縣西猫峴'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36 『戶口總數』 第六册 羅州 曲江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戶口總數』, p.148).
馬峴村 內洞村 池內村 侍中村 五松岩村 鳧海村 栗村 山亭村 蓮山村 君池村 大角村 新羅村 永洞村 (하략).

다. 이때 곡강면 군지촌(君池村)과 대각촌(大角村)을 통합한 후 대지리(大池里)로 고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37]

대지리에는 대각저수지 주변에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고, 현 동강면도 나주를 기준으로 남서쪽에 해당되지만 서쪽에 있다는 점에서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 부합된다. 그러므로 대각동은 현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대각촌마을로 비정된다.[38] 하지만 대각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 혹은 저수지에 수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987년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에서 이른 시기의 인화분청이 확인되었다고 한다.[39]

도기소는 주(州) 남쪽 금마리(金磨里)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호구총수』에 금마리와 관련된 지명을 찾아보면 금마면(金磨面)이 있고, 자기와 관련되어 '사촌(沙村)'이 확인된다.[40] 금마면은 1906년 9월 지방구역 개정에 의해 나주군 종남면(終南面)·비음면(非音面)·원정면(元井面)과 함께 영암군으로 편입되었고,[41] 1914년 4월 금마면(金磨面)의 '금(金)'과 원정면(元井面)의 '정(井)'을 합쳐 금정면(金井面)이 되었다. 따라서 나주목 도기소 금마리는 현재 영암군 금정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영암군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금정면 청용리 동산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다.[42] 청용리는 원정면에 속했지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마면의 동산리, 월암리, 성자리 외 5개 리(里)를 병합하여 청용리라 하여 금정면에 편입되었다.[43] 그런데 청용리에 사촌(沙村)마을[동산, 동산리]이 있는데,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고, 동쪽에는 큰 산인 촛대봉이 있다고 하였다.[44] '사촌'이라는 지명은 『호구총수』 나주 금마면의 사촌(沙村)과 동일하여 주목되는데, 『한국지명총람』에 '동산, 동산리'라고 부기(附記)된 점으로 보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청용리가 된 금마면의 '동산리'가 바로 『호구총수』 편찬 시기의 사촌(沙村)으로 추정된다. 즉 『호구총수』 편찬 시기에는 사촌(沙村)이었다가 1914년 이전 어느 시기에 동산리로 바뀐 듯하다.

또한 나주의 1872년 지방지도에는 남동쪽에 금마면(金磨面)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사촌(沙村)'이 보인다(그림 2). 이 지도의 금마면 '사촌(沙村)'은 『호구총수』 금마면 사촌(沙村)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용리 사촌마을(현 동산마을)이 나주목 도기소 금마리임을 알 수 있다. 동산마을 이장의 전언에 의하면 동산마을을 사촌으로도 불렀다고 하는데,[45] 6·25전쟁 이후 '사촌'이라는 마을명은 사용하지 않고, 동산마을로만 부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나주목 도기소인 금마리는 현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동산마을로 비정된다.[46] 지표조사에서는 조화문분청사기병, 귀얄문분청사기, 청자, 갑발 등이 수

37 金井昊 편저, 1988, 『地方沿革硏究 -全南을 中心으로-』, 光州日報出版局, p.210.

38 나주목 자기소에 대한 추정은 1998년 나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발간하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대각촌이 자기소라고만 하였다.(木浦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羅州市-』, p.159) 한성욱은 대각촌마을의 고라실로 불리는 우두봉 기슭 끝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나주시·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앞의 책, p.384).

39 羅州市·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 1999, 『羅州市의 文化遺蹟』, p.384.

40 『戶口總數』 第六册 羅州 金磨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48)
眞川村 玉浦村 湧泉村 列沙村 生鐵店 沙村 冨店村 抽虎村 盤谷村 龍盤村 (하략).

41 金井昊 편저, 1988, 앞의 책, p.204.

42 秀林文化財團·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3, 『靈巖 磁器所 陶器所 學術調査 報告書』, pp.41~44.

43 한글학회, 1983, 『한국지명총람』 15 (전남 편 III), p.201.

44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202.

45 청용리 동산마을 박○주 이장의 전언에 의한다.

46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또한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동산마을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발간된 영암군 요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청용리 동산마을 1곳에서만 분청자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어 이곳이 『世宗實錄 地理志』 羅州 金磨里 陶器所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고 있다(秀林文化財團·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앞의 책, p.56).

습되었다.[47] 인화문 분청사기가 확인되지 않아 아쉽지만, 지명의 변화상과 문헌 기록상의 방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마리 도기소로 비정할 수 있다.



그림 2 나주 1872년 지방지도 사촌(沙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다음은 해진군(海珍郡)이다. 해진군은 1409년(태종 9) 해남현(海南縣)과 진도현(珍島縣)이 통합되면서 해진군이 되었고, 1412년(태종 12)에 치소를 영암군 속현(屬縣)인 옥산(玉山)으로 옮겼다가 1437년(세종 19) 진도가 분리되면서 다시 해남현(海南縣)이 되었다.[48]

해남군의 자기소와 도기소는 군 동쪽 파지점(波池岾)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호구총수』에 이와 유사한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3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해남군의 분청사기·백자 요지 16개 중 군 동쪽에 있는 것은 찾기 힘들다(그림 1).

파지점(波池岾)과 유사한 지명을 해남현에서는 찾기 어려웠으나, 해남 동쪽 강진현에서 파지점과 유사한 파지대면(波之大面)이 확인된다.[49] 파지대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이전에는 파대면(波大面)으로, 1914년에는 파대(波大)·보암(寶岩)·백도면(白道面)을 통합하여 도암면(道岩面)이 되었다.[50] 현재는 도암면과 신전면으로 분리되었으나, 분리 이전 도암면에는 영파리(永波里)가 있었는데, 영파리의 경우 옛 파대면(波大面)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51] 현재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강진군 분청사기 요지는 신전면 수양리 2개소, 군동면 금사리 1개소,[52] 칠량면 명주리 1개소[53] 등 4개소이다. 군동면은 강진의 동쪽이어서 해남과 관련시킬 수 없고, 신전면은 강진과 해남 사이에 있다. 분청사기 요지 두 곳이 보고된 신전면 수양리는 옛 강진현 보암면(寶巖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같은 면의 사점리(沙店里), 삼인리(三仁里), 봉양리(鳳良里), 장동(壯洞)을 합하여 수양리가 된 후 도암면에 편입되었다.[54] 수양리가 보암면 지역이었지만, 1872년 강진현 지방지도에는 파지대면과 함께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고(그림 3), 수양리의 점골이라는 곳에 사기점이 있었으며,[55] 수양리가

47 수림문화재단·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앞의 책, pp.41~44, pp.85~87.

48 『世宗實錄』 151권 全羅道 羅州牧 海珍郡.
至太宗九年己丑 合海南縣 爲海珍郡 十二年壬辰 又徙于靈巖屬縣玉山之地營邑焉.
『世宗實錄』 78권, 世宗 19年 7月 3日.
慶尙道 南海縣合於昆明縣 稱爲昆南郡 全羅道 珍島郡合於海南縣 稱爲海珍郡 至是分而爲二 各置守令 以復舊號.
『新增東國輿地勝覽』 237권 全羅道 海南縣.
太宗九年合于珍島縣爲海珍縣十二年徙邑治于靈巖屬縣玉山之地世宗十九年復析爲縣監.

49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201.

50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367.

51 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13 (전남 편 Ⅰ), p.26.

52 南道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康津郡-』, pp.254~258.

53 강진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2, 『2012년 가을 착수 명주지구 경지정리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p.9.

54 한글학회, 1982, 앞의 책 (전남 편 Ⅰ), p.52.

55 한글학회, 1982, 앞의 책 (전남 편 Ⅰ), p.53.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같은 보암면 지역이면서 자기와 관련된 지명인 사점리(沙店里)와[56] 통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수양리 일대도 주목되는 지역이다.

수양리 '점골'은 현 봉양저수지 부근인데[57] 수양리 수양 분청사기 요지와 수양리 봉양 분청사기 요지가 저수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500여m, 남동쪽으로 1.2㎞ 정도 각각 떨어져 있다. 두 유적의 추정 시기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연대와 유사한 15세기로 보고되었고,[58] 특히 봉양 분청사기 요지에서 기내·외면에 국화문이 장식된 편과 4~5중의 원권문에 승렴문이 집단연권형으로 시문된 인화 분청사기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59]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해진군, 즉 해남 동쪽에 있는 강진현의 자기소·도기소 기록이 없다. 또한 해남의 동쪽 옥천면과 그 주변 일대가 영암군에 속했던 적이 있는 등 행정구역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60] 조선 초기에는 파지대면과 보암면 일대가 해진군에 속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남군의 자기소·도기소는 잠정적으로 현재 강진 지역인 영파리 일대나 수양리 일대로 추정해본다.



그림 3 강진현 1872년 지방지도(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영암군 자기소와 도기소는 군 서쪽의 곤미다점리(昆湄多岾里)와 곤미율점(昆湄栗岾)이라고 하여, '곤미(昆湄)'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곤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폐현(廢縣)으로 나오고, 군 서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61] 영암군의 1872년 지방지도에는 '곤일시면(昆一始面)' 밑에 '곤미(昆湄)'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옆에 '고현지(古縣址)'라고 부기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폐현이라고 한 기록을 증명하고 있다(그림 4). 따라서 '곤미(昆湄)' 주변에 자기소·도기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곤미는 현재 미암면 미암리 미촌으로, 곤미현이 있었다고 한다.[62] 그런데 미암리 귀미산[노적마을] 동쪽 골짜기에 사그점골이 있고, 여기에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였다.[63] 노적마을은 미촌 남쪽으로 미암저수지 동편이지만 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미암리는 곤일시면(昆一始面) 지역으로 『호구총수』에 기록된 지명은 '미촌(眉村)'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다점리(多岾里)와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1930년 서호면으로 개칭된 곤이종면(昆二終面)의 곡다회(曲多回)라는 지명이 눈에 띈다.[64] 1912년 이전에는 복다회(福多回)로, 1930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곤이종면 송호리(松湖里), 아천리(牙川里), 몽해리(夢海里), 복다회(福多回)와

56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371; 윤여정,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 -제1권 전남·광주 편-』, 향지사, p.81.

57 신전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점골은 현 봉양저수지 부근이라고 안내해주었다.

58 南道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康津郡-』, p.121, 218. 다만 발굴이 아닌 지표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59 2017년 10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보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강진 수양리 봉양 분청사기 요지 유적 범위에서 이들 인화 분청사기를 확인하였다.

6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구도」 4책 25층 15판 참조 (http://kyudb.snu.ac.kr/book/text.do); 윤여정, 2009, 앞의 책, p.522.

61 『新增東國輿地勝覽』 35권 全羅道 靈光郡.
古跡 昆湄廢縣 在君西三十里 (하략).

62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221.

63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221.

64 『戶口總數』 第六册 靈巖 昆二終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72).
和所 防築內 曲多回 新基 夢海里 (하략).

곤이시면(昆二始面) 신소정(新沼亭) 일부와 함께 몽해리로 통합되었다.[65] 현재 서호면은 영암읍의 남서쪽에 있어서 군 서쪽에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도 어느 정도 부합되지만, 몽해리에서 확인된 요지는 옹기 요지이다.[66] 결과적으로 미암리와 몽해리의 경우 영암군 자기소 '곤미다점리'로 비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67] 최근 발굴된 영암 상월리 유천과 상리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어, 이곳을 영암군 자기소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68]



그림 4 영암군 1872년 지방지도 곤미(昆湄) 주변(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도기소의 경우에는 곤미율점(昆湄栗岾)이라고 하였다. 율점(栗岾)과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1928년에 미암면으로 개칭된 곤일시면(昆一始面)의 율리(栗里), 1930년에 학산면으로 개칭된 곤이시면(昆二始面)의 율동(栗洞)이 있다.[69] 곤일시면 율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같은 면의 계양리(桂陽里), 대초지(大草池), 우와대(牛卧岱) 등이 통폐합되면서 선황리(仙皇里)로 바뀌었고, 곤이시면의 율동은 1914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70]

'율점(栗岾)'은 '밤고개'라는 의미로, 곤일시면 율리(현 미암면)나, 곤이시면 율동(현 학산면) 모두 후보지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영암군 1872년 지방지도에는 현 학산면이 된 곤이시면 동쪽에서 '율치(栗峙)'가 확인된다(그림 4). '치(峙)'는 '높은 언덕, 고개, 재'라는 의미이다. 결국 『세종실록』「지리지」 영암군 도기소로 기록된 '율점(栗岾)'과 1872년 영암군 지방지도에 보이는 '율치(栗峙)'는 동일한 장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현재 영암군 묵동리에는 율재, 율치(栗峙), 율현(栗峴) 등의 지명이 있다. 묵동리도 본래 곤이시면 지역이었다.[71] 현 묵동리의 '율치(栗峙)'와 1872년 지방지도 영암군 곤이시면 동쪽에 있는 '율치(栗峙)'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호구총수』에서 확인되는 곤이시면 율동은 율치(栗峙) 주변에 있었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묵동리와 상월리 경계에 사그점골(사기점)이라는 지명이 확인되고[72] 있기 때문에 현 묵동리와 상월리 경계 지점에 영암군 도기소인 율점(栗岾)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학산면 상월리 유천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 5개가 확인되었고, 4호와 5호 두 곳의 요지가 발굴조사되었는데, 5호 요지 폐기장에서 '사(司)'명 초벌편, '인수(仁壽)'명 분청사기가, 4호 요지 남쪽 2호 폐기장에서도 '내

65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09.

66 木浦大學校博物館,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靈巖郡-』, p.174.

67 서호면 장천리에도 옹기점이 있었다고 하는 '점등'이라는 지명이 확인되는데, 장천리에서 요지로 추정되는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한글학회, 1983, 앞의 책, p.243; 木浦大學校博物館,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靈巖郡-』, pp.179~180).

68 수림문화재단·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앞의 책, p.56.

69 『戶口總數』 第六册 靈巖 昆一始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72).
月亭里 木果洞 守山里 達山里 鳳仙里 鶴坪里 眉村 擊壤里 大草旨里 新基村里 月昌里 栗里 堂里 細峯里 (하략).
『戶口總數』 第六册 靈巖 昆二始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71).
富春洞 莊六亭 龍地里 栗洞 場邊 三寅洞.

70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p.406~407.

71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288.

72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289.

섬(內贍)'명, '인수(仁壽)'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73] '사(司)'는 왕실의 식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인 '사선서(司膳署)'를 의미한다. '인수(仁壽)'는 인수부(仁壽府)를 이르는데, 1400년에 설치된 이래 덕녕부(德寧府)로 바뀌었다가 세조 3년(1457) 다시 인수부가 되었고, 세조 10년(1464) 이전에 혁파되었다. '사(司)'와 '인수(仁壽)'명 모두 관사명(官司銘)으로, 이는 1417년(태종 17) 4월 도난 방지를 위한 관사명(官司名) 표기 시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일대가 공납용 자기를 생산했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74]

결과적으로 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유천마을 주변 요지를 영암군 도기소 율점(栗岾)으로 비정할 수 있다.[75] 아울러 이들 요지에서 '사(司)'·'인수(仁壽)'·'내섬(內贍)'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자기소뿐 아니라 도기소에서도 자기 생산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공납용 자기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76]

다음은 영광군이다. 자기소가 있다고 기록된 군 서쪽 구수동(九岫洞)은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로 생각할 수 있다. 『호구총수』에 구수면(九水面)에 구수동(九峀洞), 구수미(九水尾), 구수동(九水洞)이 나오기 때문이다.[77] 구수면은 1914년에 금마면(今麻面)과 봉산면(奉山面)이 합쳐져 백수면(白岫面)으로 통합되었으나[78] 구수리에는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수리 남쪽인 길용리에는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되었다.[79]

길용리도 역시 구수면(九水面) 지역이었다. 1914년에 길흥리(吉興里), 상신리(上新里)와 봉산면(奉山面)의 범현리(帆峴里), 용암리(龍岩里), 마계리(馬溪里), 입석리(立石里)를 병합하여 길흥리의 '길(吉)'과 용암리의 '용(龍)'을 합쳐 길용리가 되어 백수면에 편입되었다.[80] 길용리의 경우 옛 구수면 지역이면서 분청사기 요지도 확인되어 영광군 자기소인 구수동(九岫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81] 길용리에는 '밧사우지'라는 지명이 있는데, 사기를 구웠다고 한다. '밧사우지'는 용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82]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가 바로 용암마을 서쪽 길용저수지가는 골짜기 입구이다. 그리고 구수산이 있는 길용리는 구호동(九虎洞)이라고도 했는데,[83] 『호구총수』에서도 한자는 다르지만 구수면에 구호동(九湖洞)이 확인된다. 이

73 靈巖郡·(財)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6, 『靈巖 上月里 窯場 發掘調査 報告書』, p.75. pp.139~140.

74 박경자, 2009, 앞의 논문, pp.117~118; 박경자, 2011,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美術史學硏究』 270, p.100; 영암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앞의 책, p.229. 상월리 유천 요지의 요업 활동 시기는 1410~1470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75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영암현 도기소 율점을 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상사 요지로 추정하였다. 이 요지에서는 도기 요지로 추정되는 가마터도 확인되었다고 한다(수림문화재단·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앞의 책, p.56).

76 기왕의 연구에서는 자기소에서 백자, 도기소에서 분청사기를 제작했다는 견해(鄭良謨, 1979, 「朝鮮王朝 前期의 陶磁와 粉靑沙器」 『李朝陶磁(粉靑沙器 篇)』, 中央日報社·季刊美術, p.186), 충청도 지역 도기소 지명에 '甕', '瓦'字가 확인되는데, 이를 오늘날 간장, 된장을 담그는 장독과 같은 종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도기소는 甕器나 瓦器를 생산했던 곳이라는 견해(姜敬淑,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연구 -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硏究』 202, 1994, pp.26~29)가 있었다. 그 후 김영원 선생은 '陝川長興庫'명 분청인화사이호(Honolulu Academy Art 소장)가 유물의 실제 품질과 문헌 기록상 품질이 차이를 보인 실례라고 하면서, 이는 하품 도기소에서 실제로 중·상질 분청사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공납용 자기를 도기소에서도 특별히 번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지적하였다.(金英媛, 1995, 앞의 논문, pp.46~50) 그리고 충정도 도요지 조사에서도 도기소에서 번조한 도자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金英媛, 2001, 앞의 논문, p.21~27), 하품 도기소에서도 극소량이나마 관청명 도자기를 공납용으로 번조했다고 하였다.

77 『戶口總數』 第六册 靈光 九水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74).
靑龍洞 平地村 荏子洞 石朴里 九龍 天氣洞 大興里 德湖洞 九峀洞 獅子洞 隱仙洞 東湖 韓侍郎里 九水尾 九湖洞 帆縣洞 苫田 雲亭 中苫田 丹橋村 下苫田 衾店 九水洞.

78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p.446~448.

79 木浦大學校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靈光郡-』, pp.129~130.

80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116.

81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앞의 책, p.129.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구수동 자기소로 추정되는 곳이다'라고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82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117.

83 이는 구수산에서 뻗어 내린 아홉 개의 지맥이 호랑이 형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앞의 책, p.634).

구호동은 영촌마을 서남쪽에 있는데,[84] 2013년 지표조사한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 ①, ②, ③이 영촌마을 남서쪽에 위치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길용리는 영광군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자기소가 군 서쪽이라는『세종실록』「지리지」기록과 부합되고, 영광군 1872년 지방지도에도 구수면이 치소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그림 5).



그림 5 영광군 1872년 지방지도 구수면(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2013년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 지표조사에서는 '내섬(內贍)'명 분청사기를 확인하였다. 기존 요지 ②(2호)와 그 북쪽 '가마등'에 있는 새로운 요지인 요지 ③(3호) 두 곳에서 수습하였다(그림 6 중앙). '내섬'명 외에 국화문이 시문된 인화기법 분청사기도 확인되어 이른 시기에 가마가 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영광군 자기소로 기록된 구수동은 현 백수읍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도기소가 있었던 곳은 군(郡)의 남쪽 송악지동(松嶽只洞)이다. 일명 소나무가 많은 마을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명을『호구총수』에서 살펴보면, 육창면(六昌面)에 송림(松林), 대안면(大安面)에 송촌(松村) 등이 있다.[85] 대안면은 마촌면(馬村面)과 통합되어 대마면(大馬面)으로 개칭되었는데[86] 영광의 동쪽에 위치해, 군 남쪽에 있다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육창면은 1914년 마산면(麻山面), 외간면(外間面)과 통합되면서 군남면(郡南面)으로 바뀌었고, 이는 도기소가 군 남쪽이라는『세종실록』「지리지」의 방위 기록과 부합된다. 육창면 송림(松林)의 경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 대덕리(大德里)로 편입되었지만[87] 대덕리에는 요지는 물론 자기 관련 지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영광군 군남면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는 곳은 남창리이다. 남창리도 예전 육창면 지역이었다.[88] 남창리 분청사기 요지는 배재저수지와 연접해 있고, 2013년 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 조사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저수지 남쪽은 사방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유물을 확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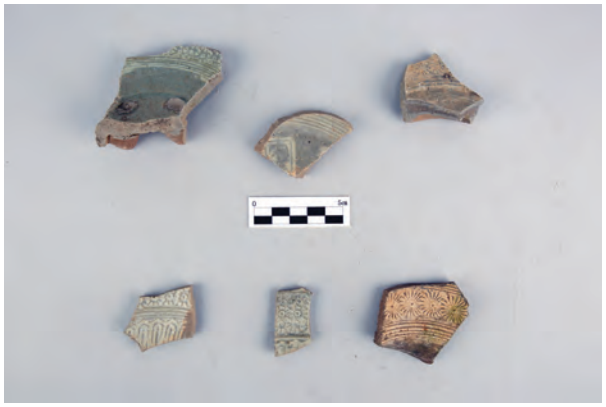


그림 6 2013년 지표조사 수습 유물 (필자 촬영) - 영광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 ②(2호).

84 주 82와 동일.

85 『戶口總數』第六册 靈光 六昌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戶口總數』, p.174).
大藪里 栗谷 衾店 淸洞 新垈 生鐵店 上廣巖 下廣巖 松林 德興洞 (하략).
『戶口總數』第六册 靈光 大安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戶口總數』, p.174).
金川里 支境巖 陽地村 (중략) 新垈 新成洞 進上洞 五周橋 福洞 釜山 松村 竹村.

86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41.

87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49.

88 한글학회, 1983, 앞의 책 (전남 편 III), p.75.

없었다. 위의 남창리 요지는 1987년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의 용암리 분청사기 요지로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조사 시 수습 유물 중에는 고려 말 흑백상감의 연당초문대접과 15세기 전반경의 인화 분청사기가 있다고 하였다.[89] 수습된 유물로만 보면 상하한 연대는 14~15세기로,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연대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 요지에서 수습한 유물을 근거로 1390~1420년의 초기(제2기) 분청사기 요지를 추정하기도 한다(그림 7).[90]

결국 영광군의 도기소가 군 남쪽이라는 점과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시기와도 부합되는 유물이 확인된 남창리 요지를 영광군 도기소인 송악지동(松嶽只洞)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 국립광주박물관 조사 남창리 분청사기 요지 수습 분청사기(국립광주박물관, 1988,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 (II)』, p.119에서 전재).

다음은 함평현으로, 자기소가 위치했던 곳은 현(縣) 북쪽 완창리(完昌里)라고 하였는데, 현재 손불면 북성리 분청사기 요지 일대로 추정된다. 완창리와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손불면 완정리(完丁里)가 보이는데,[91] 완정리는 1914년 완정리를 비롯하여 복학리(伏鶴里), 금곡리(今谷里), 해은리(海隱里) 외 3개 리를 합쳐 학산리(鶴山里)로 바뀌었다.[92] 하지만 현재 학산리에는 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93]

그런데 학산리에서 동쪽으로 3㎞ 떨어진 북성리(北城里)에 분청사기 요지가 있다. 특히, 요지가 있는 마을명이 사기로, 사기점 혹은 사기소라고도 한다.[94] 북성리도 손불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사기리(沙己里), 홍북리(洪北里), 신성리(申成里) 일부 등을 병합하여 홍북리의 '북(北)'과 신성리의 '성(成)'을 합쳐 북성리라 하였다.[95] 『호구총수』에서 북성리로 추정되는 지명은 사기소리(沙器所里)로 보인다.[96] 왜냐하면 분청사기 요지가 있는 마을 이름도 사기이고, 1912년에 사기리(沙己里)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성리도 함평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 방위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성리 사기마을 분청사기 요지 일대가 함평현 자기소로 기록된 완창리로 비정된다.

2013년 현지 지표조사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 유물인 인화 분청사기편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는 영암 상월리 유천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인수(仁壽)'명 분청사기처럼 굽 외면에 원문이 백상감된 고급품도 있다. 인화문양은 국화문, 나비문이, 그 외 유물로는 보형(簠形) 제기(祭器)뿐 아니라 갑발편도 확인되어 고급 기물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8).

89 국립광주박물관, 1988,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 (II)』, pp.89~90. 이 보고서에서는 용암리 분청사기 요지를 석암마을 남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저수지 위쪽에 있다고 하였다. 석암마을 남쪽 골짜기 저수지는 현 배재저수지로 추정되고 현재 행정구역은 남창리에 해당된다.

90 강경숙 선생은 영광 군남면 용암리 요지에서 수습한 분청사기상감연당초문대접편과 분청사기인화화문대접편을 근거로 1420년대 분청사기 초기(2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라고 하였다(강경숙, 2011, 앞의 책, pp.220~251. 이 책에서는 영광을 영암이라고 하였으나, 군남면은 영암군에 없다. 영광의 오기인 듯하다).

91 『戶口總數』 第六册 咸平 孫佛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92).
廟洞里 加德山里 花陽里 (중략) 乭浦里 完丁里 永安洞里 外沙器里 湖巖里 毛良界里 沙器所里 且京洞里 伏巖里 (하략).

92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26.

93 東新大學校文化博物館,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함평군-』, p.359.

94 동일 지역에 대한 국립광주박물관의 지표조사(1987년)에서는 북성리 사기점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국립광주박물관, 1988, 앞의 책, p.55). 『한글지명총람』에도 북성리에 사기소마을이 나오는데, 사기점이 있었다고 한다(한글학회, 1984, 『한국지명총람』 16 (전남 편 IV, 제주 편), p.79).

95 한글학회, 1984, 앞의 책(전남 편 IV, 제주 편), p.79.

96 주 9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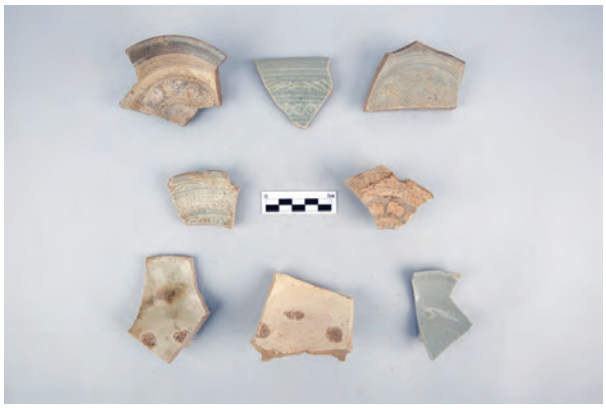


그림 8 2013년 지표조사 수습 유물 (필자 촬영) - 함평 북성리 분청사기 요지 ①(1호).

도기소가 위치했던 곳은 완창리와 현(縣) 서쪽 다경리(多慶里), 현(縣) 동쪽 쌍령동(雙嶺洞)인데, 완창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현 서쪽에 있다는 다경리는 함평현에 있었던 다경면(多慶面)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경면은 1906년 9월에 무안군으로 이속되었고, 1914년 현북면(玄化面)과 다경면(多慶面)을 현경면(玄慶面)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97] 현경면에는 동산리와 평산리 두 지역에서 요지가 조사되었는데,[98] 이 중 동산리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되어 주목된다. 동산리는 통합 이전 다경면 지역으로, 분청사기 요지는 현 애북마을에 위치한다. 이 요지에서는 인화, 덤벙, 귀얄 분청사기가 확인되어 15~16세기경으로 편년되었다.[99] 따라서 이곳 동산리 일대가 도기소인 다경리로 추정되며, 함평의 서쪽에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2013년 현지 조사에서는 마을이 들어서 유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 동쪽에 있다고 한 쌍령동은 현 나산면 송암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으로 추정된다. 넓게는 송암리 주변 원선리, 월봉리, 삼축리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쌍령동과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평릉면(平陵面)에 쌍령리(雙嶺里)가 있다.[100] 쌍령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평릉면 류촌리(柳村里), 원산리(元山里), 은선리(隱仙里) 등을 합쳐 원선리(元仙里)가 되었다. 그 후 1932년 평릉면은 식지면(食知面)과 통합되어 나산면(羅山面)으로 바뀌었다.[101] 현재 나산면 원선리에는 쌍령동과 관련된 지명으로 쌍령마을이 있지만, 원선저수지가 축조되면서 마을이 3/4 정도 수몰되었다. 또한 쌍령골, 작은쌍령재, 큰쌍령재라는 지명이 남아 있지만 원선리에서 현재까지 분청사기 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102]

나산면 중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된 곳은 송암리 음지마을 뿐이다.[103] 송암리는 식지면과 평릉면이 나산면으로 통합되기 이전 식지면 지역으로 1914년에 송계리, 신사리, 덕림리 등이 병합된 후 1932년 나산면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송암리 음지[덕림]마을에는 사기점터가 있었다.[104] 음지마을의 분청사기 요지는 민가, 비닐하우스 등이 축조되어 유물 수습이 어려웠지만, 구연부에 선문이 있는 분청사기 잔편이 확인되었고, 1938년에 일인(日人) 야마다(山田)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여하간 원선리에서 송암리까지는 직선거리로 5

97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21.

98 목포대학교박물관,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務安郡-』, pp.322~325.

99 국립광주박물관, 1986,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靈巖·海南·務安-』, p.34. 이 보고서에는 옹점을 동산리 분청사기 요지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옹점(닭머리)에서 요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옹점마을의 요지는 옹기 요지로 2006년에 보고되었다.(주 98) 1986년 보고서에서 말한 옹점(속칭 닭머리)은 속칭 '닭머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동산리 당두마을을 가리킨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닭머리[당두리]마을이 원동산 남쪽 마을에 있다고 하였다.(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14 (전남 편 II), p.195) 현재 원동산 남쪽에 있는 마을은 바로 당두마을이다.

100 『戶口總數』 第六册 咸平 平陵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91).
可食洞里 廣令里 (중략) 月朗里 雙嶺里 隱仙洞里 安寧洞里 (하략).

101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p.424~427.

102 원선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저수지는 1968년에 축조된 것이고, 저수지 주변에 있었던 쌍령마을은 6·25 한국전쟁 이후 폐촌되었다고 하였다.

103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03, 앞의 책, p.76.

104 한글학회, 1984, 앞의 책(전남 편 IV, 제주 편), p.65;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427.

㎞ 정도이고, 나산면도 함평읍 동쪽에 위치해 쌍령동이 현(縣) 동쪽에 있다는 『세종실록』 기록과도 부합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함평현 도기소 다경리와 쌍령동은 동산리(애북마을 일대)와 송암리 주변(원선리, 월봉리, 삼축리 포함)으로 추정된다.

무안현 자기소로 기록된 현 서쪽의 주동(周洞)은 『호구총수』에 유사한 지명을 찾을 수 없다. 현경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05] 그 외에는 다른 견해가 제기된 바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과 유물, 자기 관련 지명을 일단 살펴보겠다.

현재 자기 관련된 지명이 확인되는 지역이나 마을은 몽탄면의 달산리 사기점마을, 청용리 큰골, 청계면의 강정리 점골, 청수리 꿀등, 해제면에 양매리 점등마을, 양월리 점등마을, 용학리 점등[동산]마을, 현경면의 동산리 옹점[점등]마을, 현화리 점촌마을 등이다. 이 중 무안현 도기소 청천동(淸川洞)으로 비정되는 청수리 꿀등과 옹기와 관련되거나 옹기 요지로 밝혀진 청용리 큰골, 동산리 옹점[점등]마을, 현화리 점촌마을, 양매리 점등마을, 용학리 점등[동산]마을은 제외해도 될 듯하다.[106] 그 외 위 지역 중 조사를 통해서 유적이 확인되는 곳은 달산리 사기점마을(백자 요지), 양월리 점등마을(양월리 백자 요지 ①, ②) 등인데, 양월리 점등마을 백자 요지의 경우 해제면이 1866년 무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107] 제외하면, 강정리 점골과 달산리 사기점마을만 남게 된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통해 기왕에 알려진 요지는 분청사기 요지 8개[108]와 백자 요지 5개 등 13개이다.[109] 하지만 기존의 조사와 2013년 조사 시 수습된 유물을 고려하면 자기소로 추정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확인된 강정리 점골와 달산리 사기점마을에 대한 자기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중 청계면 강정리 점골은 남안동 서쪽 계곡으로 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하였다.[110] 강정리에는 현재 강정, 태천 두 개의 마을만 있고 남안동마을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강정리가 옛 일서면(一西面)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縣) 서쪽에 주동이 있었다고 한 『세종실록』 「지리지」 방위 기록과 부합된다. 그렇지만 이 외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들다.

몽탄면 달산리는 옛 이로면(二老面) 지역으로 1910년 목포부에, 1914년에 무안군 박곡면에, 1939년에는 몽탄면에 속하게 되었다.[111] 달산리에는 사기점[송림]마을이 있는데 사기를 구웠다고 한다.[112] 승달산 밑에 있기 때문에 달산이라고 하였는데, 지형을 보더라도 남쪽을 제외한 모든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요지에서 중요한 땔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마 운영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동(周洞)'에서 '주(周)'는 '빙 두르다, 에워싸다'라는 의미가 있다.[113] 달산리 사기점마을의 입지가 바로 이에 해당될 것 같다. 다만 달산리 사기점[송림]마을에서 조사된 유적은 백자 요지이고,[114] 무안읍

105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129. '현 위치 불명, 현경면에 있을 듯함'이라고 하였다.

106 자기소이기 때문에 옹기 요지는 제외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0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앞의 책, p.607.

108 청계면 청수리 분청사기 요지 5개를 제외한 유적 수이다. 청수리 청수동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무안의 도기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수리 분청사기 요지 ①(1호)~⑤(5호)는 제외하였다. 나머지 분청사기 요지 8개는 대치리·사천리·유월리·동산리에 위치한 요지이다.

109 백자 요지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연대가 조선 전기인 것을 고려하여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것만 포함시켰다. 백자 요지 5개는 달산리·월선리·구로리·대서리·하묘리에 위치한 요지이다.

110 한글학회, 1982, 앞의 책(전남 편 Ⅱ), p.181.

111 한글학회, 1982, 앞의 책(전남 편 Ⅱ), p.163;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131.

112 한글학회, 1982, 앞의 책(전남 편 Ⅱ), p.163.

113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0, 『漢韓大辭典』 3, pp.22~23.

114 木浦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p.139.

에서 남쪽에 있기 때문에 현 서쪽이라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115] 여하간 무안현 자기소로 기록된 주동(周洞)은 현재까지 비정할 만한 지역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조사 내용과 자기 관련 지명으로 몇몇 지역을 살펴보았다.

도기소로 기록된 청천동(淸川洞)은 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수동마을로 생각된다. 청천동과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이서면(二西面)에 하청천(下淸川), 청천리(淸川里)가 있고,[116] 1912년에는 청수동(淸水洞)과 하청천리(下淸川里), 상청천리(上淸川里)가 확인된다. 이들 지역 중 청수동은 1914년 청수리(淸水里)로, 하청천리는 사마리(司馬里)로, 상청천리(上淸川里) 일부는 외읍면(外邑面) 대동내리(大洞內里) 일부와 통합되어 청천리(淸川里)가 된다.[117] 1910년 목포부로 개칭되었던 이서면(二西面)은 1914년 일서면(一西面)과 통합되어 청계면(淸溪面)이 된 후 다시 무안군으로 바뀌었다.[118] 여기서 주목되는 곳은 1912년의 청수동으로, 현 청수리이다. 청수리의 경우 청수동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 5개소가 확인되었다.[119] 특히 '꿀등'이라는 곳에 사기점이 있었다.[120] 청계면도 무안 남서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기소가 현 서쪽에 있다고 한 『세종실록』 기록과도 부합된다.

청수동마을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 다섯 곳 중 특히 요지 ③(3호)에서 수습된 유물 중에는 잔편이지만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확인되어(그림 9), 무안군의 다른 분청사기 요지 수습 유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 명칭의 변화상과 지표조사를 통한 유물 등을 종합해보면 청수동마을 분청사기 요지 주변 일대가 무안현 도기소로 기록된 청천동(淸川洞)으로 비정된다.

장성현 자기소를 살펴보자. 장성현의 경우 도기소는 없고, 자기소만 현 서쪽 모율리(毛栗里)에 있다고 하였다. 모율리와 유사한 지명을 『호구총수』에서 찾아보면 읍동면(邑東面)의 율치리(栗峙里), 내동면(內東面)의 율곡리(栗谷里), 북일면(北一面)의 율촌(栗村) 등이 있다. 자기소가 현(縣) 서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지역은 일단 제외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서쪽과 관련된 서일면(西一面)과 서이면(西二面), 서삼면(西三面)이 주목되는데, 서일면과 서삼면의 경우 모율리 혹은 자기 관련 지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서이면에서 '사기점(沙器店)'과 '우라사기(牛羅沙器)'가 보인다.[121] 1912년에도 서이면에 사점리(沙店里)가 있고, 1914년에는 서이면 사점리(沙店里), 금동리(金洞



그림 9 2013년 지표조사 수습 유물 (필자 촬영) - 무안 청수리 분청사기 요지 ③(3호).

115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밀조사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지표조사로 분청사기 요지나 백자 요지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백자 요지가 분청사기 요지로, 분청사기 요지가 백자 요지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 유적이 있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6 『戶口總數』 第六册 務安 二西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96).
道垈里 立石里 基洞里 (중략) 下淸川 淸川里 老洞 五老洞.

117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p.133~135.

118 한글학회, 1982, 앞의 책(전남 편 II), p.181;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131.

119 木浦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務安郡-』, pp.165~166.

120 한글학회, 1982, 앞의 책(전남 편 II), p.187.

121 『戶口總數』 第六册 長城 西二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62).
麥洞 下登山 冠井 (중략) 沙器店 龍岩里 龍積 生鐵店 所崑里 牛羅 牛羅沙器 盆梅洞 (하략).

里), 초지리(草枝里), 고사리(孤寺里) 등을 합하여 금호리(金狐里)라 하였으며, 서이면은 서일면, 남삼면(南三面)과 통합되어 황룡면(黃龍面)으로 개편되었다.[122] 따라서 현 황룡면 금호리가 주목된다.

황룡면 금호리에는 내금동 요지, 새터 요지, 초지 요지가 조사되었다. 내금동 요지는 자기를 구웠다고 하여 '철점'으로, 새터는 '가마등', 초지 요지는 '점등'이라 불렸고[123] 금호리 쇠골, 즉 금동(金洞)마을 남서쪽에는 사점(沙店)마을이 있다고 하였다.[124] 현재 내금동마을 남쪽에 초지마을이 있는데, 이 초지마을이 예전에는 사점마을이었다고 한다.[125] 결국 사점마을이 바로 초지마을이고, 초지마을 서편 골짜기에 있는 초지 요지 주변 일대가 장성현의 자기소일 가능성이 높다. 1872년 장성의 지방지도에서도 '사점(沙店)'이 현 서쪽에서 확인된다(그림 10). 이는 현 서쪽에 자기소가 있다는 『세종실록』 기록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림 10 장성부 1872년 지방지도(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2003년 보고에 의하면 초지 요지에서 인화 분청사기, 갑발편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초지 요지에서 (청화)백자 등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화와 수습된 유물, 과거 마을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금호리 초지마을 일대의 요지 주변이 장성현 자기소 모율리(毛栗里)로 비정된다.

2. 전라북도 지역

전라북도 지역 중 나주목에 속했던 곳은 고창현과 흥덕현 두 곳이다. 현재는 고창군에 해당된다.

고창현 자기소는 현 서쪽 덕암리(德巖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1996년 국립전주박물관 조사에서는 덕암리를 현 공음면 덕암리 평촌마을 일대로 보았다.[126]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창현 기록에도 고적(古蹟)으로 북쪽 29리에 있다고 하는 덕암소(德巖所)가 소개되어 있다.[127] 하지만 현(現) 공음면은 무장군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동음치면(冬音峙面)과 와공면(瓦孔面)이 통합되어 고창군으로 편입된 것이다. 덕암리도 무장군 와공면 지역인데, 1914년에 평촌리, 복흥리, 창평리, 지음리, 응암리 각 일부와 전남 영광군 도내면 주록동 일부를 병합하여 덕암리라 한 후 공음면에 편입되었다.[128] 따라서 현 덕암리는 1914년 이후 명칭이면서 고창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창현 자기소 덕암리가 될 수 없다.[129]

현재 고창군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 요지는 그동안

122 김정호 편저, 1988, 앞의 책, pp.464~473.

123 國立光州博物館·乙支事業團, 2003, 『長城 諸兵協同訓鍊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pp.71~73.

124 한글학회, 1983, 앞의 책(전남 편 III), p.434.

125 금동마을 주민(박○준)에 의하면 현 초지마을 서편 일대가 옛 사점(沙店)마을이라고 하였다.

126 國立全州博物館, 1997, 앞의 책, p.20.

127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6卷 全羅道 高敞縣條.
古跡 大良坪部曲 在縣南十五里 陶成部曲 在縣北二十五里 德巖所 在縣北二十九里岩古作密.

128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 11 (전북 편 상), p.54, p.56.

129 권혁주도 공음면 덕암리를 『世宗實錄』 地理志 高敞縣의 자기소로 단언할 수는 없으며, 고려~조선 초 고창현의 치소, 출토유물의 양식 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혁주, 2013, 「高敞 龍溪里窯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 『湖南考古學報』 43, p.108 주 5).



그림 11 고창현 1872년 지방지도 현 용계리 주변 지역(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재, 필자 수정).

의 지표 및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대략 4개소 정도이다.[130] 앞에서 언급한 공음면 덕암리 요지를 제외하면 3개소인데, 이 중 부안면 수동리 분청사기 요지의 경우 현 행정구역은 고창군이나, 조선 초기에는 고부군에 속해 있었다. 결국 고창군 분청사기 요지는 2개소만 남는데, 이 2개소는 발굴된 고창 용산리와 용계리 분청사기 요지이다.

그렇다면 고창현 자기소 덕암리는 어디일까? 필자는 아산면 용계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일대로 생각한다.[131]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자기소 '덕암리'와 현 '용계리' 지명 차이이고, 둘째, 현(縣)에서의 방향과 거리 문제이다. 즉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덕암리가 현 서쪽이라고 하였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덕암소가 북쪽이라고 밝히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명에 대한 문제이다. 『호구총수』에 기록된 조선 후기 고창현 서쪽 지역은 오서면(五西面), 수곡면(水谷面), 대아면(大雅面), 산내면(山內面)으로, 이 지역에서는 덕암리와 유사한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132] 그럼 용

130 국립전주박물관의 지표조사보고서에서는 6개소를 소개하고 있으나, 4개소는 19~20세기 백자 요지이고, 분청사기 요지는 2개소이다.(국립전주박물관, 1997, 앞의 책, p.15)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고창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에는 12개소로 보고되었다.(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高敞郡,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창군』, p.295) 이 중 백자 요지는 6개이고, 청자 요지가 3개, 분청사기 요지는 3개이다. 분청사기 요지 3개는 발굴조사된 용산리와 용계리 요지이고, 나머지 1개소는 부안면 수동리 요지이다.

131 강경숙 선생도 고창현 덕암리를 고창 용계리 요지로 추정하고 있다(강경숙, 1994, 앞의 논문, p.26 표 10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의 粉靑沙器 窯址 확인지역 참조).

132 『戶口總數』 第六册 高敞 五西面, 水谷面, 大雅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p.193~194).
五西面 四巨里 石隅里 禮士里 古城里 鶴洞里 堂上里 塲巖里 陽之里 篤谷里 竹川里
水谷面 增山里 塲巖里 長善里 古連里 新平里 淸溪里 內倉里 月溪里 獐頭里 雲月里 烏山里 平地里
大雅面 木洞里 上華表里 中華梁?里 午向里 牛毛里 富貴里 萬洞里 新基里 上甲里 下甲里 篤洞里 梨津里 梧井里 大雅里 二門里 富成里 楸洞里.

계리는 어떨까? 『호구총수』에는 용계리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정확히 고창현 북서쪽 산내면(山內面) 지역에 용계리가 그려져 있다.[133] 한편 『호구총수』 산내면에 소속 지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使臣里 德川里 釜頂里 龜巖里 永慕亭里 新興里 上塔里 下塔里 馬鳴里 屛巖里 仁川里 瓮店里 東幕里 德山里 安德里 雲谷里 成德里 杏亭里 竹林里 德井里 沙瑟峙里 京方里 栗溪里

(『戶口總數』 第六冊 高敞 山內面)

위 밑줄 친 지역은 1872년 지방지도에서 용계리가 표시된 지점의 주변 지역이다. 용계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에는 용계리를 중앙에 두고 그 왼쪽에 인천리와 비석리, 용계리 오른쪽에 동막리, 용계리 위쪽에 정촌리와 안덕리가 있다(그림 11). 위의 밑줄 친 지역과 비교하면 인천리, 동막리, 안덕리는 1872년 지도에서도 확인되는 동일한 지명이다. 이 세 지역을 밑줄 친 지명에서 제외하면 병암리(屛巖里), 옹점리(瓮店里), 덕산리(德山里)가 남는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은 인근 지역명에서 한 글자씩 떼어내 조합하여 통합 지역의 새 지명으로 삼았고 이들 지명이 현 행정구역 명칭임을 고려하면, 고창현의 1872년 지도에서 확인되는 용계리는 『호구총수』의 병암리, 옹점리, 덕산리가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병암리(屛巖里), 옹점리(瓮店里), 덕산리(德山里) 중 덕산리(德山里)의 '덕(德)'자와 병암리(屛巖里)의 '암(巖)'자를 합하면 『세종실록』「지리지」 고창현 자기소인 '덕암리(德巖里)'가 된다. 결과적으로 덕암리는 현 용계리 일대로 추정 가능할 것 같다. 15세기 전반에는 용계리 주변 일대를 넓은 범위에서 덕암리라고 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134]

두 번째는 방위와 거리 문제이다. 덕암리는 현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용계리는 서쪽과 북쪽 사이, 즉 북서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에 현 서쪽이라고 한 덕암리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이라고도, 북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덕암소가 북쪽 29리에 있다고 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용계리 북쪽에 안덕리가 있는데, 그 옆에 '이십오리(二十五里)'라고 부기되어 있다.[135] 결과적으로 5리 차이가 나는데, 이는 경북 고령 사부리와 기산리 일대 가마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자기소의 위치가 순차적으로 이동했다는 예를 참고할 만하다.[136] 즉 덕암리에 있었던 고창 자기소 역시 넓은 범위에 걸쳐 가마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마의 이동을 고려한다면, 두 문헌에서의 5리 차이는 기록의 오차 허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용계리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아산면 용계리는 옛 고창현 산내면(山內面) 지역이었다. 또한 산내면 서쪽은 대아면(大雅面)으로, 1914년 군면 폐합으로 산내면의 '산(山)'자와 대아면의 '아(雅)'자를 병합하여 현재의 아산면이 되었던 것이다.[137]

용계리 분청사기 요지는 발굴조사되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내섬' 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된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볼 때, 『세종실록』

133 『戶口總數』에는 內山面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山內面으로 북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134 조선 초기 지명인 德巖里를 19세기 후반의 지도에 나오는 지명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요지를 기준으로 추정 범위를 축소시켰고, 용계리 요지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방위에 부합될 뿐 아니라, 발굴 결과 자기소로 비정할 만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다만 가마의 운영 시기에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연대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는 용계리 요지에 대한 전면 발굴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필자는 보았다.(주 138 참조) 그리고 자기소와 도기소 지명 비정에 대한 논거가 해당 지명에 대한 연혁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13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창현 1872년 지방지도」 참조(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136 박경자, 2011, 앞의 논문, p.114.

13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앞의 책, p.331; 한글학회, 1981, 앞의 책(전북 편 상), p.97, p.100.

「지리지」 고창현 자기소 덕암리는 현 용계리 분청사기 요지 일대로 비정된다.[138]

다음으로는 고창현 도기소로 기록된 포내호리(布乃乎里)이다. 포내호리는 자기소와 마찬가지로 현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호구총수』에 기록된 고창현 8개 면의 모든 지명에서 포내호리와 유사한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한 성송면 사내리 사내마을 요지로 추정되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139] 미정으로 남기고자 한다.

흥덕현 자기소는 현 남쪽 갑향(甲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에는 갑향과 관련되어 유사한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140] 『신증동국여지승람』 흥덕현 원우조(院宇條)

138 권혁주는 용계리 일원을 고창현의 행정구역으로 비정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권혁주, 2013, 앞의 논문, p.108)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상의 기록과 가마터 조사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용계리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시점과 발굴조사 결과 용계리 요지군의 운영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용계리 요지의 운영 시기를 1450년대 이후라는 박경자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둘째, 고창현의 치소가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흥덕현 도기소로 기록된 輪峴洞이 현 용계리와 용산리를 연결하고 있는 屈峙와 동일한 지명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용계리 요지 일대는 고창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계리 요지 조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마의 윤곽선만 확인하였지(권혁주, 2013, 앞의 논문, p.107 표 1 참조), 가마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은 퇴적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450년대 이후라고 하는 연대는 가마를 발굴조사하기 전까지 유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박경자에 의해 제기된 연대를 근거로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시점과 가마 운영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견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은 고창현 치소 이동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창현 치소 축조 현황이 기재되지 않은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의 규모 기록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편찬 당시에는 고창현의 치소인 읍성이 축조되지 않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시기에 비로소 읍성이 축조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읍성 발굴 결과 1453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과 고창현 치소가 이동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된다. 편찬 연대가 다른 두 기록을 두고 치성의 이동 가능성을 전제하기보다는 『세종실록』 편찬 단계에서는 치성이 축조되지 않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단계에서 읍성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흥덕현 도기소로 기록된 輪峴洞과 屈峙가 동일하다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輪峴洞과 屈峙 두 지명은 동일한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屈峙는 고창현의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용계리를 지나면 길 마지막에 '屈峙'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현 운곡저수지를 지나 카운티선운골프장 앞을 지나는 긴 도로 구간 일대가 바로 굴치다. 屈峙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현재 운곡저수지에 수몰된 용수마을에서 부안면 용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이 고갯길은 앞서 설명한 운곡저수지 앞 고갯길에 해당되고, 소굴치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의 굴치는 용산리 용산마을 동북쪽에 있는 고개로 상등리 상굴로 가는 고갯길이다.(한글학회, 1981, 앞의 책(전북 편 상), pp.72~73, p.100) 하지만 두 개의 굴치 어느 한 곳도 輪峴洞으로 변화되지 않고, 屈峙라고 하였다. 『戶口總數』에 기록된 흥덕현의 8개 면의 하나인 二西面에도 上屈峙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흥덕현에도 상굴치리가 있었다는 점인데, 이 상굴치리는 위 두 개의 굴치 중 상등리로 넘어가는 두 번째 굴치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상등리는 원래 흥덕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戶口總數』에도 中登里 다음에 上屈峙里가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개의 里가 上嶝里로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혁주는 두 개의 굴치 중 두 번째 굴치, 즉 상등리로 넘어가는 굴치와 海東地圖에 그려진 '屈峙'(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屈峙)가 동일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輪峴洞은 그가 제시한 문헌(禪雲寺, 2003, 「德源君別願堂 禪雲山禪雲寺 重創 山勢事跡形止案」『兜率山禪雲寺誌』)에 의하면 선운사에 이르는 길을 표현할 때 등장하기 때문에 輪峴洞과 屈峙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권혁주가 제기한 용계리 요지 일대가 고창현이 아니라 흥덕현이었다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13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포내호리 참조. 1984년에 발간된 고창 지역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는 '사내마을 요지'로 보고되었다. 사내마을 뒤편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수많은 도자기편들이 산재해 있을 뿐 가마터는 현존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다.(全北大學校博物館, 1984, 『高敞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p.116) 하지만 성송면은 무장의 星洞面과 元松面이 통합된 것으로, 1914년 고창군에 편입되어(柳在泳, 1993, 앞의 책, p.334) 원래 고창지역이 아닌 관계로 포내호리가 될 수 없다.

140 『戶口總數』 第六册 興德(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90)

縣內面 峙里 校村里 石湖村里 吾太洞里 西門外里 新里 客舍里 祿士川里 東門外里 伏龍村里 水水果亭里

北面 沙浦里 大村里 下大村里 後浦里 龍頭里 龍所洞里 募軍村里 內南堂里 下南堂里 外南堂里 東林里 舊松堂里 新松堂里 長橋村里

東面 七星洞里 德山里 生斤里 奄洞里 龜壽洞里 恒月里 長子山里 (?)城里 外免里 雲山里 夕陽洞里 內免里 外洞里 長所洞里 新坪里 長橋村里

二東面 東山里 外東山里 寒井里 免騰里 月下村里 月西村里 盧洞里 月明里 片月里 新洞里 山亭村里 玉石里 鳩井里 新月里 酒缸里 新頂里 安由里 竹林里 笠山里 柿木里 洛山里 銀洞里 竹洞里 台山里 止善里 長山里 三五里 魚龍浦里 橋洞里 鳳巖里 甘洞里 玉橋村里 大川里 鳳棲洞里 保安里

一南面 堤下村里 內古里 外古里 星巖村里 賓月山里 種松里 內化龍里 外化龍里 道巖里 林里 越化龍里 鳩山里 旺林里 龜鳳里 田中里 鴉山里 鎰店里 加平里 水鐵店里

二南面 松亭里 石門亭里 黃衾店里 大江里 海坪里 龍秋洞里 笠田里 笠新基里 上盤龍里 下盤龍里 城南村里 基洞里 細谷里 龍巖村里 蟹川里 蟹龍洞里 蟹新基里

一西面 扶松洞里 龍橋洞里 碧松洞里 眞井洞里 白雲里 新基里 三台里 朝陽里 中登里 法止洞里 風巖里 書堂里

二西面 社倉里 中登里 上堀峙里 新塔里 新坪里 龍山洞里 (壺?)巖洞里 江亭里 烟起洞里 山直村里 仙雲浦里 書堂村里 竹島里 露積村里 龍井里 外沙川里 內沙川里 蜈蚣里 石橋村里.

에는 갑향원(甲鄕院)이 소개되어 있는데, 남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141] 그런데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加平里)가 고려시대에 '갑향(甲鄕)'이 있어서 '갑향(甲鄕)'이라 불렸고, 조선시대에 갑향원(甲鄕院)이었다고 한다.[142] 하지만 가평리 일대에서 자기와 관련된 지명이나 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143]

가평리에 갑향원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림면 14개 리(里)를 대상으로 자기 관련 지명을 조사한 결과 무림리, 법지리 등 2개소에서 점등(점촌)이라는 지명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무림리 점등은 조선 말 옹기점이라고 하였고[144] 법지리는 조선 전기 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145] 따라서 일단 갑향이 있었다는 가평리를 흥덕현 자기소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흥덕현 도기소이다. 흥덕현 도기소는 윤현동(輪峴洞)으로 현 서쪽이라고 한다. 윤현동과 유사한 지명은 『호구총수』에서 찾아볼 수 없다.[146] 하지만 고창 선운사와 관련하여 '윤현(輪峴)'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147]

此禪雲大刹耕潭之處也 地名高敞 北之有里名曰塔田 十里之次 有中路此刹 米糒百穀秋收 載車輪入之路 因名車餘 次之大路有 輪峴 其下有石塔 塔之周旋之間 皆爲此寺田奇 農所獲也. (禪雲寺, 2003,「德源君別願堂禪雲山禪雲寺重創山勢事跡形止案」『兜率山禪雲寺誌』)

위 기록을 보면 선운대찰(선운사)은 경담(耕潭) 지역으로 고창에 있는데, 북쪽에 탑전(塔田)마을이 있다고 하였다. 탑전마을은 현 반암리 탑정마을로 추정된다.[148] 탑정마을은 고창읍 북서쪽에 위치하여 위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10리를 가면, 다음 도로 가운데 선운사가 있고, 백곡(百穀)을 추수하여 그 도로로 수레에 실어오는 까닭에 '거여(車餘)'라 이름하고, 다음 대로(次之大路)에 '윤현(輪峴)'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운사가 고창에 있고 그 북쪽에 탑전(塔田), 즉 탑정마을을 언급한 후 차지대로(次之大路)에 윤현(輪峴)이 있다고 한 점이다. 그러므로 윤현의 위치는 현(現) 탑정마을~선운사로 가는 길 도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탑정마을에서 선운사로 가는 도중에 차지대로(次之大路)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주진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부의 도로, 즉 탑정마을 북쪽인 강정마을에서부터 선운사 진입로인 삼인교차로까지로 추정된다(그림 12).

'윤현(輪峴)'은 또한 조선 전기 김종직의 시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에서도 확인된다.[149] 김종직이 흥덕현의 문을 나와서 큰비를 만났는데, 윤현(輪峴)을 지나자 계곡물이 말의 배까지 차서 마침내 물에 막혀 안덕사(安德寺)를 찾아가 머물렀다는 것이다. 안덕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화시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50]

141 『新增東國輿地勝覽』 34卷 全羅道 羅州牧 興德縣.
院宇 甲鄕院 在縣南十五里.

142 한글학회, 1981, 앞의 책(전북 편 상), p.86.

14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高敞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 高敞郡』, pp.277~278; 國立全州博物館, 1997, 앞의 책, pp.15~36.

144 한글학회, 1981, 앞의 책(전북 편 상), p.87.

14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高敞郡, 2005, 앞의 책, pp.230~234. 법지리 점등(점촌)도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신림초등학교 남쪽 신림교회 뒤편에서 옹기를 구웠다고 한 점으로 보아, 옹기와 관련된 요지로 추정된다.

146 주 140과 동일.

147 권혁주, 2013, 앞의 논문, p.110에서 재인용.

148 권혁주, 2013, 앞의 논문, p.110.

149 『佔畢齋集』 卷21.
七月二十五日出興德縣門逢大雨過輪峴澗谷之水皆及馬腹遂阻水尋安德寺宿焉.

150 『新增東國輿地勝覽』 34卷 全羅道 羅州牧 高敞縣.
佛宇 安德寺在火矢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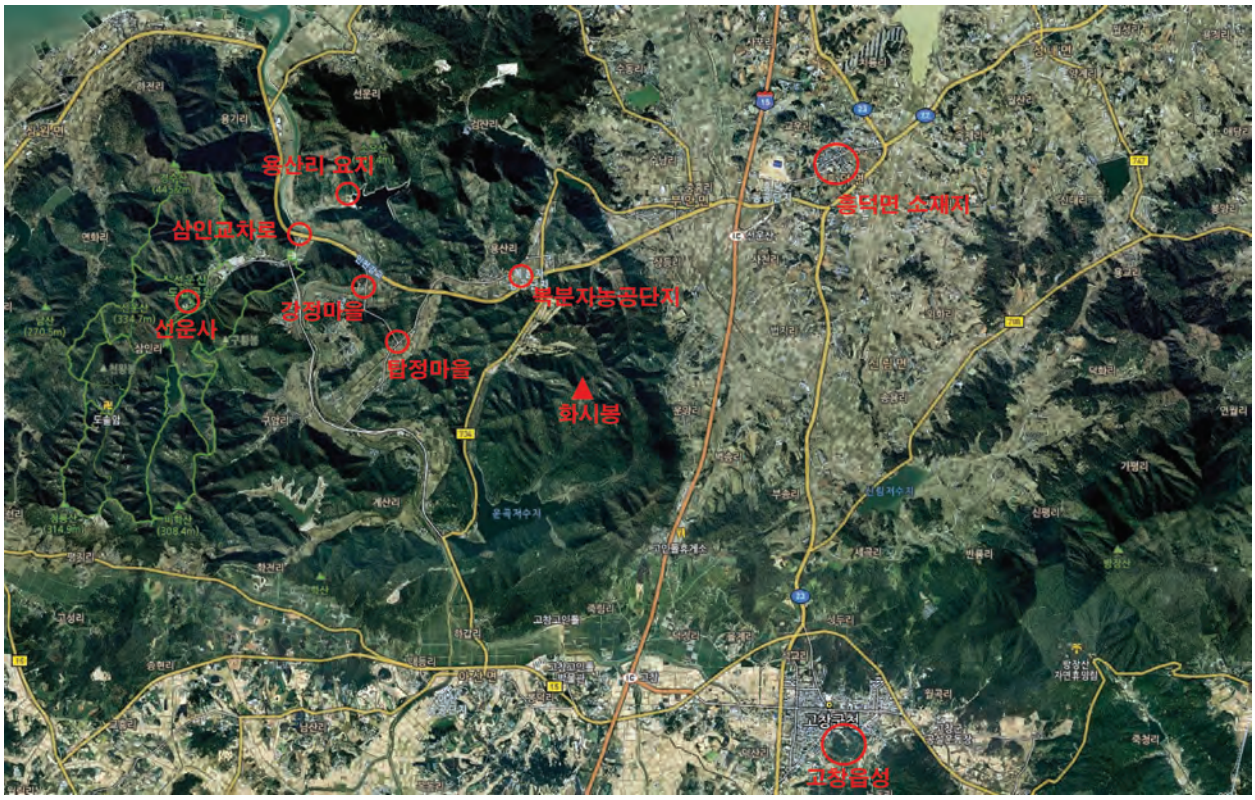


그림 12 흥덕현 도기소 관련 고창군 내 주변 지역(네이버지도에서 전재, 필자 수정).

김종직이 길을 나선 곳은 흥덕현이기 때문에 현재의 흥덕면에서 선운사로 진입하는 도중에 윤현이 있어야 타당하다.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 즉 탑정마을에서 선운사로 가는 차지대로(次之大路) 등을 충족하려면 윤현동은 현 고창복분자농공단지 일대 교차로에서[151] 그 서쪽 선운사로 가는 길, 즉 연기저수지 앞 22번 도로 주변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위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운사에 기증된 논(田)은 현재 탑정마을을 포함한 그 일대인 반암리 주변뿐이다.[152] 그 외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더구나 탑정마을 북서쪽 선운사 진입로 시작 지점인 삼인교차로 건너편에는 용산리 요지가 발굴조사되어 더 주목되는 것이다.[153]

흥덕현 도기소 윤현동은 일단 현재 아산면 용산리 고창복분자농공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그 서쪽 선운사로 가는 삼인교차로 일대까지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용산리 요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으로 나주목과 그 속현인 해진군(海珍郡), 영암군(靈巖郡), 영광군(靈光郡), 함평현(咸平縣), 무안현(務

151 현 용산마을 이장의 전언으로는 고창복분자농공단지 일대 주변 길을 '술을 걸러낸다'는 의미에서 '수리낸길'로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 '수리낸길'이 혹 과거에는 『兜率山禪雲寺誌』의 기록처럼 선운사로 곡식을 수레로 옮기는 길이었다면 '수레'와의 관련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고창지역이 복분자로 유명해짐에 따라 술과 관련된 지명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152 반암리 주변 일대에 있는 논은 현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개간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 기록을 남겼을 당대에는 더욱 더 논이 더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3 박형순은 고흥 운대리 요지의 성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고창 용산리 요지를 전라도 지역 자기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朴亨順, 2017,「高興 雲垈里 粉粧粉青沙器의 現況과 性格 - 粉粧粉青沙器의 現況과 性格 -운대리 7號를 中心으로-」『東北亞 粉粧粉青沙器의 變遷과 高興 雲垈里 粉粧粉青沙器의 意味』, 제3회 高興 雲垈里 粉青沙器 國際學術大會발표집, p.166) 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용산리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安縣), 고창현(高敞縣), 장성현(長城縣) 자기소와 도기소 위치를 비정해보았다. 기왕의 조사에서 나주목 자기소와 도기소, 영광군 자기소, 고창군 자기소, 고부군 자기소를 추정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 현재 남아 있는 지명, 기존 조사와 2013년 지표조사를 통해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자기소·도기소로 기록된 지명을 비교·분석하여 그와 부합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위 지역들에 대한 자기소·도기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비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Ⅳ. 자기소·도기소 위치 비정의 의미와 향후 연구 전망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도기소에 대한 기록은 조선 전기 공납과 관련되어 매우 주목되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타 지역 연구 성과에 비해 부진하였던 나주목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에 덧붙여 자기소에 비해 소홀하게 여겨졌던 도기소의 성격을 간단하게나마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 자기소·도기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전남 지역의 경우 각 시군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을 통해서 자기소만을 추정하였다. 유물만을 가지고 추정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구역의 변화상과 현재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자기 관련 지명, 그리고 지표 혹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을 기초 자료로 삼는 등 보다 다각적인 자료를 종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주목 도기소, 영암군 도기소, 영광군 자기소, 함평군 자기소, 무안현 도기소, 고창현 자기소, 장성현 자기소를 비정할 수 있었다.

각 군현의 자기소·도기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공납 자기의 생산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고, 특히 전남 지역은 경상도에 비해 더 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작업을 충실하게 다져놓는 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도기소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에는 자료가 풍부한 자기소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도기소는 한쪽에 비켜나 있었다. 자기소와 도기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기소는 분청사기와 소량 백자가 생산되었다고 믿어졌다. 이는 지표·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하지만 자기소보다 연구가 소홀했던 도기소는 과연 어떤 기물을 생산하였는지 현재까지 불분명하였고, 단순히 분청사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만 제기된 상황이었다.[154]

그런데 영암군과 무안현 도기소로 비정되는 영암 상월리 분청사기 요지와 무안 청수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분청사기가 확인됨에 따라 도기소에서도 자기가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아니지만 김제 청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인해 2009~2014년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유물과 함께 청도리의 행정구역 변화상에서 도기소의 성격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주부 도기소로 기록된 우림곡(雨林谷)이 바로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분청사기 요지로 비정된다는 것이다. 청도리는 옛 전주 우림곡면(雨林谷面) 지역이다. 이는 『호구총수』에서도 확인된다. 『호구총수』에는 전주 30개 면(面) 중 우림곡면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청도원리(淸道院里)와 동곡리(銅谷里)가

154 金英媛, 1995, 앞의 논문, pp.46~50; 金英媛, 2001, 앞의 논문, pp.21~27.

앞뒤로 병기되어 있다.[155] 청도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도리(淸道里), 두정리(豆亭里), 동곡리(銅谷里)와 금구군 수류면의 용정리(龍亭里) 일부를 병합하여 전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김제군 금산면 소속으로 바뀌었다. 현재 청도리에 속한 마을 중에는 동곡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된 것이다. 『한글지명총람』에는 청도리에 '구리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도기촌 또는 동곡으로 부기되어 있다.[156] 구리골이 동곡마을이고 도기촌인 것이다. 결국 현 동곡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청도리는 조선 전기에 전주부 우림곡면 지역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청사기 요지를 발굴조사한 결과 출토 유물 중에 공납용 자기로 추정되는 '공(公)'명, '상(上)'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157] '공(公)'명 분청사기는 광주 충효동 요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주지하듯이 광주 충효동 요지는 무진군(茂珍郡) 자기소인 이점(利岾)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적이다. 또한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조에 '우림곡(雨林谷)은 서남쪽으로 처음이 10리이고, 끝이 20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872년 전주 지방지도에도 읍치 남서쪽에 '우림곡면'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현재도 정확히 전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동지지』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전주부 도기소 우림곡이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분청사기 요지가 거의 확실함에 따라 도기소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왕에 제기되었던 도기소에서의 자기 생산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역시 발굴조사된 영암 상월리 분청사기 요지, 그리고 지표조사에서 분청사기가 확인된 무안 청수리 분청사기 요지를 고려하여, 도기소에서도 자기가 생산되었다는 기왕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158] 그런데 청도리의 행정구역 변화상과 발굴 결과 확인된 '공(公)'명, '상(上)'명 분청사기로 인해 도기소에서도 자기가 생산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계기로 도기소 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기소에서도 자기를 제작하였는데, 자기소와 도기소를 구분하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장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도기소로 추정되는 요지에서 저장용 기물이 확인된다는 것은 현재까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 자기소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큰 저장용 기물이 확인된다면 지역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자기소와 도기소를 구별하여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각 지역의 자기소·도기소가 밝혀진다면 당시 공납품이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이와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연구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한 예가 태안 마도 앞 바다에서 출수된 마도4호선이다. 마도4호선은 나주를 출발하여 서울 광흥창으로 미곡과 공납품을 싣고 가던 조선시대 최초 조운선으로 밝혀졌다. 이는 '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는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공납 물품 중에는 '내섬(內贍)'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어, 중앙 관사(官

155 『戶口總數』 第六册 全州 雨林谷面(서울大學校 奎章閣, 1996, 『戶口總數』, p.144).
車馬坪里 車馬坪 下新里 (중략) 九德里 長壽洞里 淸道院里 銅谷里 杻嶺里 歸信里.

156 柳在泳, 1993, 앞의 책, p.281; 한글학회, 1981, 앞의 책(전북 편 상), p.148.

157 東西文物硏究院, 2018, 『金堤 淸道里 陶窯址 (1)』, p.447, p.532. 이외에도 명문 분청사기로는 '果'명, '果+公'명도 있고, '內贍'으로 추정되는 명문자기도 있다.(동서문물연구원, 2018, 앞의 책, p.450, 451) 혹시 '內贍'명 분청사기가 맞다면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분청사기 요지는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명실상부한 전주부 도기소인 雨林谷으로 짐작된다. 한편 '公'자는 貢物 또는 官物로 추정한 견해가 있고(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p.153; 박경자, 2005, 「粉靑沙器 銘文 연구」 『講座美術史』 p.271), '上'자는 '上品'을 의미한다는 의견(金英媛, 「朝鮮朝 印化粉靑의 編年的 考察 -光州 金谷里 窯址 出土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8~82)과, 상품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일 것으로 본 견해(박경자, 2005, 앞의 논문, pp.270~271), 그리고 공납 자기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 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 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50).

15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湖南의 磁器所 陶器所 -羅州牧-』, pp.158~159.

司)인 '내섬시(內贍寺)'에 상납할 공납품이었던 셈이다.[159]

목간에 나주 지역 조창인 영산창으로 쓰지 않고 왜 '나주(羅州)'로 쓰였는지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지만,[160] 여하간 나주에서 출발하여 서울 광흥창으로 보내는 조운선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도4호선에서 확인된 '내섬'명 분청사기는 과연 어디에서 제작되었을까?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161] '나주광흥창' 목간으로 인해 나주목 자기소인 대각동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대각동에서 이와 유사한 분청사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기소·도기소가 아닌 나주 신광리와 운봉리에서도 각각 '사선(司膳)'명과 '내섬(內贍)'명 분청사기가 확인된 예도 있다.

하지만 대각동도 그 입지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 대각동 옆이 바로 영산강으로, 자기소에서 생산한 물품을 조운선으로 옮겨 실을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예가 부안 우동리 요지이다. 부안 우동리 요지는 부안현 자기소 감불리(甘佛里)의 유력한 후보지인데,[162] 요지가 있는 우동리도 바다에 연접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공납 자기를 쉽게 조운선으로 옮겨 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나주목 자기소 대각동과 부안현 자기소 감불리는 강과 바다에 연접해 있다는 점과 조운선이 이동하기 편리한 지리적 입지를 갖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마도4호선이 조선시대 조운선의 첫 번째 실물 자료로 밝혀지고, 그 조운선에 공납 자기도 실려 운송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자기소·도기소에서 생산된 자기들의 운송 경로와 유통망 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초기 나주목과 그 산하 군현의 자기소·도기소 위치를 추적해 보았다.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도기소에 대한 기록은 조선 전기 공납과 관련되어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지만, 각 지역의 자기소와 도기소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 특히 전남 지역은 경상도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였다. 하지만 자기소·도기소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가장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다. 자기소·도기소가 현 행정구역상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요지의 발굴로 인한 성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다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주목과 그 소속 군현의 자기소·도기소 비정지는 <표 2>와 같다.

한편 그동안 자기소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도기소 성격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소뿐 아니라 도기소에서도 자기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주목 도기소, 영암현 도기소, 무안현 도기소로 각각 비정되는 영암 금정면 청용리 동산 분청사기 요지, 영암 학산면 상월리 유천 분청사기 요지, 무안 청계면 청수리 청수동 분청사기 요지 등에서 많은 양의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에서도 발굴조사로 인해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공납 자기로 생각되는 '공(公)'명과 '사(上)'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이 분청사기 요지가 위치한 청도리가 옛 전주부 도기소 우림

15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 마도4호선』, p.19.

160 문경호는 마도4호선이 나주 영산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덕성창(함열현) 혹은 진포에서 출발한 조운선이라고 보았다(문경호, 2016, 「조선 초기의 조운제도와 태안 마도4호선」 『태안 마도4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392, pp.408~409).

161 박경자는 마도4호선에서 확인된 3점의 '내섬'명 분청사기의 경우 모두 한 곳의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박경자, 2016, 「마도4호선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 『태안 마도4호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361~363).

162 국립전주박물관, 1997, 앞의 책, p.120, p.371.

곡이 있었던 우림곡면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기소에서도 자기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기소로 생각되는 유적이 확인되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더 많은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도기소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역의 자기소·도기소가 어디인지 밝혀진다면 당시 공납품이 어떤 경로로 운송되었는지, 이와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연구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각 지역 자기소·도기소가 현 행정구역상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의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왕의 조사에서는 지표 혹은 발굴조사 결과 유물을 통한 추정에 머물렀지만,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상을 추적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기소·도기소로 비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표조사나 발굴 결과 유물을 통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가마터가 위치한 지명에 대한 변화상이나 자기 관련 지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중 남원도호부와 장흥도호부에 속했던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기소·도기소 위치 비정은 별고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표 2 나주목과 그 산하 각 군현의 자기소·도기소와 그 비정지

계수관	지역명	자기소				도기소			
		지역	수량	품질	비정지	지역	수량	품질	비정지
나주목(羅州牧)	나주목(羅州牧)	주(州) 서쪽 대각동(大角洞)	1	중품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대각촌마을 일대	주(州) 남쪽 금마리(金磨里)	1	하품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동산마을(사촌마을) 분청사기 요지 일대
	해진군(海珍郡)	군(郡) 동쪽 파지점(波池岾)	1	하품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신전면 수양리 일대(?)	군(郡) 동쪽 파지점(波池岾)	1	하품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신전면 수양리 일대(?)
나주목(羅州牧)	영암군(靈巖郡)	군(郡) 서쪽 곤미다점리(昆湄多岾里)	2	중품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미암면 미암리(?)	군(郡) 서쪽 곤미율점(昆湄栗岾)	2	하품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유천마을 분청사기 요지 일대
	강진현(康津縣)	자기소, 도기소 기록 없음							
	무장현(茂長縣)	자기소, 도기소 기록 없음							
	영광군(靈光郡)	군(郡) 서쪽 구수동(九岫洞)	1	하품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분청사기 요지 일대	군(郡) 남쪽 송악지동(松嶽只洞)	1	하품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일대 (용암리 일부 포함)
	함평현(咸平縣)	현(縣) 북쪽 완창리(完昌里)	1	하품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분청사기 요지 일대	둘은 완창리(完昌里), 둘은 현(縣) 서쪽 다경리(多慶里), 하나는 현(縣) 동쪽 쌍령동(雙嶺洞)	5	하품	완창리 :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일대 다경리 :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애북마을 일대) 쌍령동 : 함평군 나산면 원선리(?), 송암리 일대
	남평현(南平縣)	자기소, 도기소 기록 없음							
	무안현(務安縣)	현(縣) 서쪽 주동(周洞)	1	중품	?	현(縣) 서쪽 청천동(淸川洞)	1	중품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수동마을 분청사기 요지 일대
	장성현(長城縣)	현(縣) 서쪽 모율리(毛栗里)	1	하품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초지마을(사점마을) 요지 일대	도기소 기록 없음			
	고창현(高敞縣)	현(縣) 서쪽 덕암리(德巖里)	1	중품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요지 일대	현(縣) 서쪽 포내호리(布乃乎里)	1	하품	?
	흥덕현(興德縣)	현(縣) 남쪽 갑향(甲鄕)	1	중품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일대	현(縣) 서쪽 윤현동(輪峴洞)	2	하품	고창군 아산면 용산리 용산교차로~삼인교차로 일대(?, 용산리 요지 배제 못함)

* 이 글은 2013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던 '호남지역 도자문화 연구'라는 예비연구과제 성과물인 『湖南 磁器所陶器所-羅州牧-』(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의 고찰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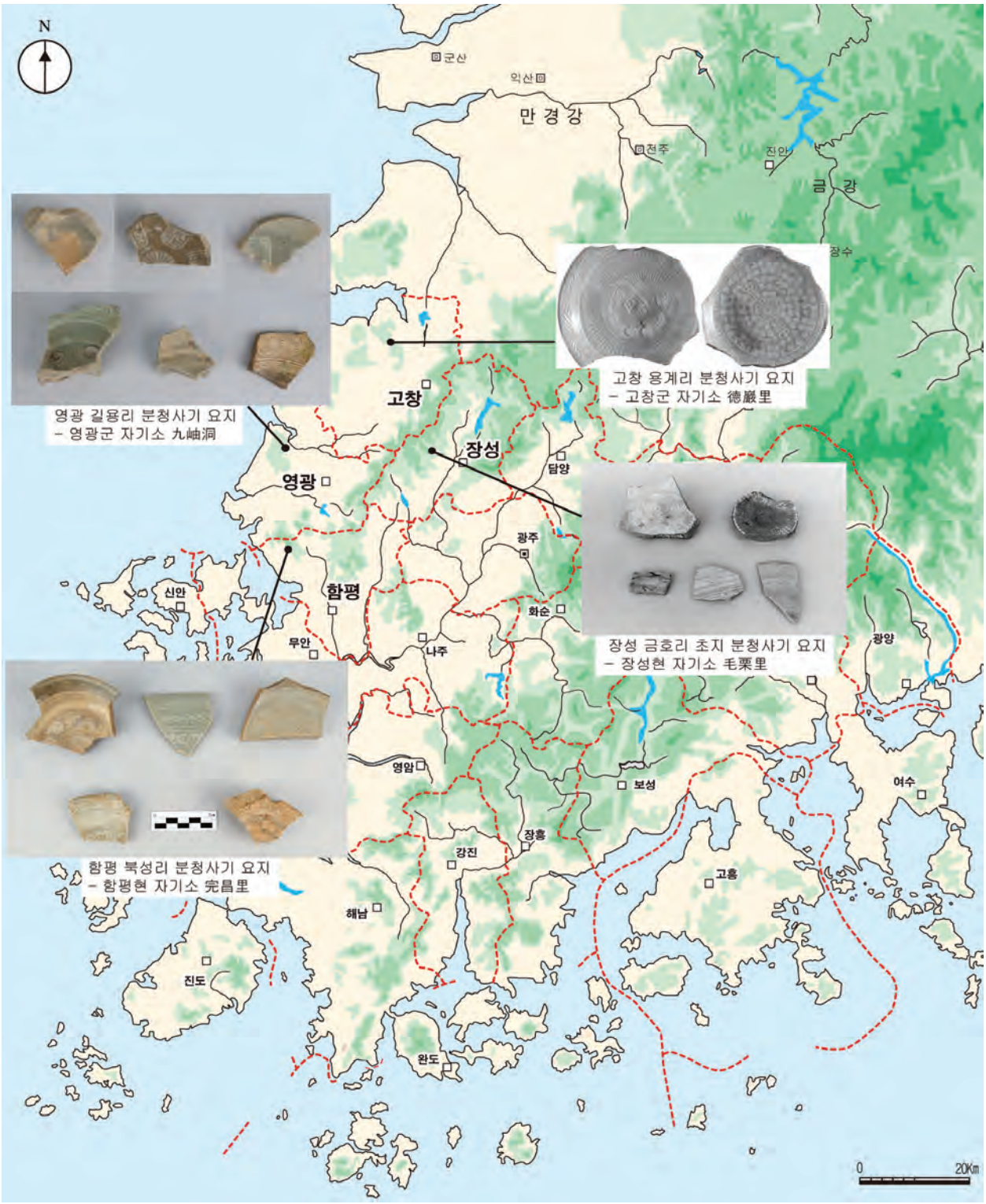


그림 13 나주목 소속 각 군현 자기소 비정지 확인 분청사기.[163]

163 고창 용계리 분청사기 요지와 장성 금호리 분청사기 요지 유물 사진은 (財)湖南文化財硏究院·(주)선운메이크밸리, 2008, 『高敞 龍溪里 窯址』와 國立光州博物館·乙支事業團, 2003, 『長城 諸兵協同訓鍊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에서 각각 전재하였다.



그림 14 나주목 소속 각 군현 도기소 비정지 확인 분청사기.[164]

164 영광 남창리 분청사기 요지와 영암 청용리 분청사기 요지 그리고 영암 상월리 분청사기 요지 유물 사진은 국립광주박물관, 1988,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II)』, 秀林文化財團·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3, 『靈巖의 磁器所 陶器所 學術調査 報告書』, 靈巖郡·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6, 『靈巖 上月里 窯場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각각 전재하였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地理志」
- 『戶口總數』
- 新增東國輿地勝覽』
- 禪雲寺, 2003, 「德源君別願堂 禪雲山禪雲寺 重創 山勢事跡形止案」『兜率山禪雲寺誌』
- 1872년 지방지도
- 金井昊 편저, 1988, 『地方沿革硏究 -全南을 中心으로-』, 光州日報出版局, p.210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편, p.634
- 柳在泳,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民音社, p.334
- 윤여정,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 -제1권 전남·광주 편-』, 향지사, p.81
-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 11, p.54, p.56
- 한글학회, 1982a, 『한국지명총람』 13, p.52
- 한글학회, 1982b, 『한국지명총람』 14, p.163
- 한글학회, 1982c, 『한국지명총람』 15, p.201
- 한글학회, 1984, 『한국지명총람』 16, p.65
- 국립광주박물관, 1986,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靈巖·海南·務安-』, p.34
- 국립광주박물관, 1988,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 (II)』, pp.89~90
- 國立光州博物館, 1996,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V) -谷城·順天·麗川-』, p.191
- 國立光州博物館·乙支事業團, 2003, 『長城 諸兵協同訓鍊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pp.71~73
- 國立全州博物館, 1997,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朝鮮時代 粉靑·白磁 窯址-, p.20
- 羅州市·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 1999, 『羅州市의 文化遺蹟』, p.384
- 南道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康津郡-』, p.121, p.218
- 東新大學校文化博物館,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함평군-』, p.359
- 東西文物硏究院, 2018, 『金堤 淸道里陶窯址 (1)』, p.447, p.532
- 木浦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羅州市-』, p.159
- 木浦大學校博物館, 1999,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靈巖郡-』, p.174
- 木浦大學校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靈光郡-』, pp.129~130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務安郡-』, pp.322~325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高敞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 -高敞郡』, p.137, p.184
- 秀林文化財團·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3, 『靈巖 磁器所 陶器所 學術調査 報告書』, pp.41~44
- 영암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영암 상월리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pp.14~25
- 靈巖郡·民族文化遺產硏究院, 2016, 『靈巖 上月里 窯場 發堀調査 報告書』, p.229
- 全北大學校博物館, 1984, 『高敞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p.116
- 全州文化遺產硏究院, 2016. 1,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참고문헌

- 全州文化遺產硏究院, 2016. 8,「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추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姜敬淑, 1994,「『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硏究」『美術史學硏究』202, p.26
- 권혁주, 2013,「高敞 龍溪里窯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호남고고학보』43, p.108
- 金英媛, 1995,「世宗 연간의 陶磁에 관한 考察」『美術資料』55, pp.46~50
- 金英媛, 2001,「朝鮮時代 窯業體制의 變遷 -陶器所·磁器所에서 分院官窯로-」『美術資料』66, pp.21~27
- 김영원, 2014,「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 시기」『美術資料』86, p.69
- 박경자, 2010,「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 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 변화」『美術史學』24, pp.296~303
- 박경자, 2011,「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美術史學硏究』270, p.100
- 張東哲, 2008,「尙州 大杓里 窯址 陶磁片 硏究」『美術史學硏究』257, p.6
- 장동철, 2013,「『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品等 基準 硏究 -慶尙道를 중심으로-」『文物硏究』24
- 鄭春澤, 2017,「朝鮮 前期 墳墓 出土 陶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硏究」,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金喜靜, 2014,「15世紀 慶南地域 白磁의 變遷過程과 特徵」, 忠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3
- 박경자, 2009,「朝鮮 15世紀 磁器 貢納에 관한 硏究」,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 張東哲, 2010,「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田勝昌, 2007,「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 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6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September 2019, pp.4~3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the Locations of Jagiso and Dogiso in Najumok Recorded in the 'Sejongsylrok Jiliji'

Yun-gil Sung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kk6505@empas.com

Abstract

Buncheong Ware , which was produced for approximately 200 years from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o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used for royal house and state affair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Records of Buncheong Ware can be found with Jagiso and Dogiso, considered the place of production, in the 'Sejongsylrok jiliji' . This is notable, unlike celadon and white porcelain. However, compared to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the study of Jagiso and Dogiso in Jeollanam-do and Jeollabuk-do has been unsatisfactory.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ocations of Jagiso and Dogiso in the Jeollanam-do prefec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Najumok,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Jeollanam-do.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locations of Jagiso and Dogiso in nine areas were examined. These nine areas comprised Najumok and its immediate provinces of Haejingun, Yeongamgun, Yeonggwanggun, Hampyeonghyeon, Muanhyeon, Gochanghyeon, Heungdeokhyeon and Jangseonghyeon. Previous research results exist for some of the regions; however, only Buncheong Ware was used to estimate Jagiso and Dogiso.

In this paper, we tried to discover a more accurate position of Jagiso and Dogiso through a comparison of the place names recorded in the 'Sejongsylrok jiliji' and the place names recorded in the 'Hoguchoungsu'. Also, pottery-related area names and Buncheong Ware obtained from the field survey were reviewed. Table 2 shows the specific positions of Jagiso and Dogiso in the areas examined.

Second, it would appear that pottery was produced not only in Jagiso but also in Dogiso. This is because much of Buncheong Ware was unearthed in Najumok, Yeongamgun, and Muanhyeon Dogiso. However, it was only excavated from the Buncheong Kiln Site in Yucheon Village, Sangweol-ri, Yeongam-gun; there could be limitations regarding to the rest of the areas because onl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not an excavation. A recent excavation at Donggok Village in Cheongdo-ri, Gimje also confirmed a Buncheong Kiln Site. There were two Buncheong Ware ('公', '上')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site, believed to be Gongnapjagi. In addition, Cheongdo-ri, where the Buncheong Kiln Site is located, was found to be an area in Wurimgokmyeon, a former Wurimgok at a Dogiso in Jeonjubu. Consequently, it would seem that Dogiso also produced porcelain (Buncheong Ware). If more data can be obtained from the excavations at sites considered to be Dogiso, the results of Dogiso-related research will be strengthened.

Third, in previous surveys, field surveys and excavation surveys were based on estimates using artifacts, but the name of the location of the Jagiso and Dogiso may be confirmed more accurately by tracking the changes in the names of the administrative areas. Therefor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conduct research using the results of surveys or excavations, changes in the place names or places related to porcelain must not be overlooked.

Keywords Jagiso, Dogiso, Buncheong Kiln Site, Najumok, Sejongsylrok jiliji

Received 2019. 03. 29 ● **Revised** 2019. 04. 22 ● **Accepted** 2019. 05. 07